東大新聞

發行人 黃壽永
編輯人 朴先榮
印刷人 鄭九鎬
主幹 吳洪哲
編輯局長 金容喆
編輯部長 沈揆博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每週 火曜日發行

今週一言

無咎하면無法하고不生하면不心이니能은隨境滅하고境은逐能沈하나니라.

허물이 없다면법이 없고, 나지 아니하면 마음이랄것도 없으니, <能>은 어느 경계를 따라 없어지고, 경계는 또한<能>을 좇아서 가라앉느니라.

<信心銘>

82學年度 본교 學位 수여식

25일 오전11시 대운동장서

慶州大 첫졸업생 1백36명배출

전체수석 法政大 魯榮大군차지

82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오는25일 오전11시 (경주대는 23일) 대운동장에서 거행된다. 이번 학위수여자는 학사 1천5백71명 (경주대 1백36명) 석사 1백79명 박사12명으로 총 1천8백98명으로밝혀졌다.

한편 전체수석졸업자는 魯榮大 (법학) 君으로 1백점만점에 91・29를 획득했으며 경주대는 회계학과를 졸업하는 이정애양으로 밝혀졌다.

이번 학위수여식 行事에는 黃壽永총장을 비롯한 宗團, 財團, 同窓會및 내외인사들이 참석하게 되며, 식순은 개식사 (삼귀의례) 국민의례로 시작하여 학사보고, 학위수여식, 전교수석및 단대별 수석자 표창, 공로표창, 총장식사, 이사장고사, 동창회장축사, 답사, 사홍서원등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전교수석자및 단대별수석자와 공로자등은 다음과 같다.

◇전체수석

▲魯榮大=91・92(法政大・法學)

◇단대별 수석

▲任禎範=89・91(佛大・佛敎) ▲張東淡=89・68(文理大・統計) ▲高任錫=91・16(法政大・政外) ▲金泰雄=89・56(經商大・經濟) ▲宋貴鳳=88・93(農大・農經) ▲金大洙=88・73(工大・建築) ▲兪永煥=90・48(師範大・國敎) ▲朴基祐=89・84(二部大・社發)

◇공로・표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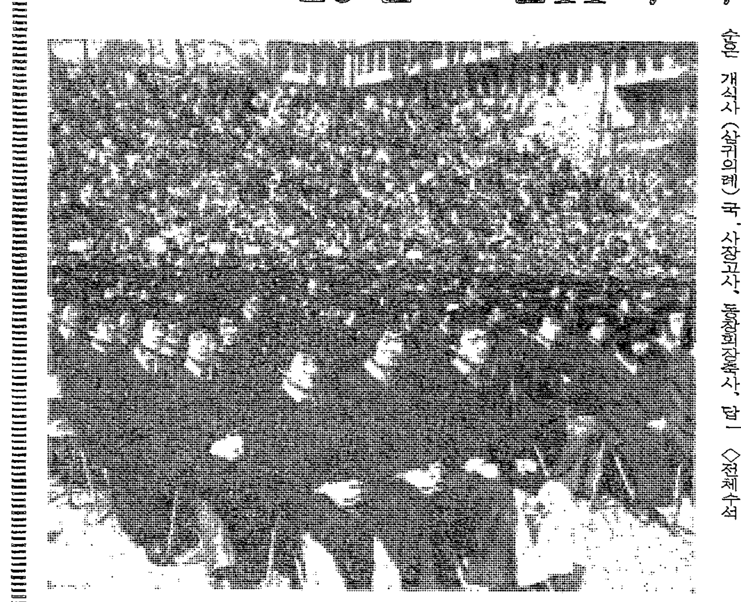
▲김홍천(法定大・경행) ▲김영생(佛大・불교) ▲엄기석(文理大・물리) ▲강인옥(法政大・법) ▲임근엽(經商大・회계) ▲윤재한(農大・임) ▲신태철(工大・공경) ▲허창균(師大・교육) ▲박기호(二部大・사회개발) ▲임성란(師大・교육) ▲장만익(法政大・행정) ▲박종열(文理大・국문) ▲이채훈(文理大・통계) ▲최광서(經商大・무역) ▲이종필(農大・농생) ▲박종영(佛大・불교) ▲김응선(師大・체교) ▲김성은(農大・농생) ▲노영대(法政大・법) ▲여희광(法政・행정) ▲장승철(文理大・물리) ▲정대진(二部大・회계) ▲김찬주(法政大・정외) ▲임선기(法政大・경행) ▲김광철(師大・체교) ▲조성규(師大・체교) ▲최성오(師大・체교) ▲김동철(法政大・경행) ▲김갑수(文理大・국문) ▲이봉수(文理大・국문) ▲박종진(農大・능) ▲도승찬(文理大・통계) ▲권혁준(工大・식공) ▲김광철(法政大・경행) ▲유희옥(師大・지교) ▲이재원(師大・국사교육)

◇동창회장표창

▲김홍천(法政大・경행) ▲한대화(師大・체교)

한편 경주대학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는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백36명이 학위를 수여받게 되는데 평점91・14점을 획득하여 수석졸업의 영광을 차지한 이정애(회계4)양을 비롯한 12명에게 각종 표창이 수여되며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장상=손한권(경제) 이정애(회계) ▲공로상=이상기(경제) 김완식(영문) 신금남(국사) 홍호순(영문) 이동욱(경영) 홍관우(경영) 원금향(국문) 김택우(경제) 정경숙(영문) 이봉훈(무역)



▲82학년도는 학부졸업생 1천5백명이 배출된다. <사진은 작년졸업식광경>

卒業式辭

"自身의 아집과독선을 버리고 社會역군돼야"

黃壽永총장

親愛하는 1982학년도 博士・碩士學位 受位者와 졸업생 여러분!

오늘 東國學院의 朴淇宗理事長님과 歷代 總長님, 鄭在哲동창회 會長님, 그리고 내외귀빈과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여 여러분의 졸업을 祝賀하게된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하는바 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所期의 과정을 마치고 겨레의 棟梁으로서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일꾼이라 하겠읍니다. 특히 졸업생 여러분은 人生의 가장 값진 시기라할 大學生活을 이곳 東岳에서 가진 英材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곳 眞理의 능산에서 학업을 닦고 참다운 삶과 각자에게 주어진 使命感에 대하여 각이 省察한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희고컨대 본교는 나라 안팎이 어지러울때 敎育救國의 기치를 들고 三寶의 淨財로 세운 民族의 名門 私學입니다. 이렇듯 佛敎精神을 建學理念으로한 本校는 성장을거듭, 今年으로 개교77주년을맞는 오랜 傳統의 大學이 되었읍니다.

이와같은 民族의 大學에서 여러분은 스스로가 선택한專攻과 自我開發을 위하여 연마를 거듭하였을것으로믿어집니다.

인간이 사는 삶의 터전이 이제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명명되고 있듯이 이 세계는 우주라는 개념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서있읍니다.

오늘의 인간은 능력과 기능을 위주로 하는 산업사회 속에서 인간 가치의 상실이 고조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속에 인간은 인간가치의 수호를 위하여 그 자신의 나아갈 길을 찾지않으면 안되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인간이 물질적 존재가 아니고 영혼과 지혜의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는 길입니다. 인간의 內在的 자각이야말로 인간을 주체적 삶의 영원성을 실현하는 고귀한 가치입니다. 내외의 대립과 갈등, 부정과 비난은 보다 고양된 가치로의 전환, 화해와 신뢰, 긍정과 찬탄으로 조화될수 있을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시대에 직면해 있읍니다. 이 시대를 선구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자신의 아집과 독선을 지양하고 민주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추구하는 지식인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인간 개별성을 존중할때 비극은 예방될수 있을것이며 창조적 인식을 바탕으로 삶아 우리는 스스로의 영혼을 구제하는 힘을 얻게 될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용기있는 지식인을 요청하는 사회에 살고 있읍니다. 용기란 관념적인 것이아니라 행동과 실천에 바탕을 두고 있읍니다. 이러한 젊은이는 높은 덕성의 함양을 통하여 민족사의 횃불이 되고 선진조국의 주역이 될수 있다고 믿읍니다.

사물을 통찰하는 지혜와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의지가 충만할때 그 사회는 밝은사회가 되고 끝없이 미래를 지향하게 될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새역사 창조의 역군으로서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또한오늘에 졸업생이 있도록 보살펴 주신 학부모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경의와 축하를 드리는 동시에 여러분의 장도에 부처님의 무한한 가피력이 함께 하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1983년2월25일

東國大學校 總長

文學博士 黃壽永

徐炳坤스님 이사 취임

1월6일 尹月下스님 후임

학교법인 東國學院 理事會에서는 지난12월6일 제56회 이사회에서 碧坡 徐炳坤스님을財團理事로임명했다. 지난75년本校理事長을역임했던 尹月下 (本名 喜重)스님이 이사직을 사임함으로서 문교부의 승인을 얻어 83년1월6일字로 理事로 취임한것이다. 徐스님의 약력은 다음과같다.

▲1929년9월6일생▲51년3월 부산시동래구청룡동546 범어사에서 득도▲58년7월 범어사에서 사미계수계▲61년5월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재무▲67년4월 제14교구 본사 범어사총무▲71년3월 학교법인 원효학원 이사 (현재) ▲72년5월 대한불교조계종중앙종회의원(현재)▲73년10월학교법인 금정학원이사장▲75년5월 대한불교조계종감찰위원(현재) ▲77년5월대한불교조계종제14교구본사범어사에서주지▲81년11월대한불조계종인사위원장

大學院 名博수여

趙奎高 교수에게

大學院에서는 오는 25일 거행되는 碩博士學位授與式에서 趙奎高 (영남大) 圖書館長에게 명예문학박사학위를 수여할 예정이다.

최근에「新國誠學槪論」、「李朝後期의 言語生活에 대한 연구」등 저서와 연구논문을 낸바 있는 趙교수는 40年 大邱師範學校를 졸업하고 요남大學교수, 영남大부설 東洋文化硏究所長, 韓國語文學會長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영남大 도서관장으로 있다.

국문과 송희복君

신춘문예 가작입선

본교 재학중인 송희복(국문)은 83년도 경향신문 주최 신춘문예에서 평론부문에 가작으로 입선되었다.

교수・직원 대폭인사

「기초과정부」단대로 소속

학교당국에서는 83학년도 교직원 인사를 다음과같이 발표했다.

먼저 교원인사로는 金鎔貞(철학과) 기초과정부장이 기초과정부가 없어지면서 문과대학장으로, 閔泰鶴 (화학과) 문리과대학장이 이과대학장, 河德模 (화학공학과) 기획실장이 기획조정실장서리, 權泰一 (경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주대학 교무부장, 金甲周 (경주대 국사학과) 교수가 경주대학 도서관장서리로 각각 임명되었으며 법정대학 도시행정학과 교수인 鄭用吉, 白京男교수가 정치외교학과 근무로 바뀌었다.

또한 鄭柄朝비서실장과 孫昌求경주대학 교무부장은 각각 보직이 면제되었다.

한편 직원인사는 (2월7일자) 다음과 같다.

▲尹成澤 免총무처총무과장 補교육대학원교학과장▲河熙一 免2부대학교학과장 補총무처총무과장▲白字錫免학생처학생과장 補예산조정과장서리▲金鍾玉 免전산원교학과장 補교무처교무과장▲朴鍾煥 免기획실기획과장 補비서실비서실장서리▲姜昌淳 免교육대학원교학과장 補기획조정실기획과장▲金炳敏 免경주대학경리과장 補도서관열람과장▲金漢宗 免도서관열람과장 補전산원교학과장▲朴在德 免기초과정부교학과장 補2부대학교학과장▲申昌俊 免교무과장 補경주대학총무부장겸총무과장서리▲崔榮峻 免경주대학시설과장 補경주대학관재과장서리▲張用喆 免경주대학서무과장 補경주대학교무과장겸학적과장▲李鍾秀 補경주대학학생과장겸학생생활과장서리▲柳興靈 免경주대학교무임 補학생처학생과장서리▲李根鎬 免교육대학원교학주임 補경주대학경리주임서리▲李偉來 免과학관리주임 補경주대학도서관열람주임서리▲崔昌暮 免비서실 補기획조정실예산조정과주임서리▲安重玉 免교무처교무주임 補총무처총무주임▲李時雨免불교대학교학주임 補교육대학원교학주임▲高相圭 免기초과정부교학주임 補교무처교무주임서리▲金鍾振 免문리과대학교학주임서리 補이과대학교학주임서리.

2學年 중도수료자 14명

학사징계자는 총7백65명

교무처에서는 82학년도2학기 학사징계자의 명단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학사경고자의 경우 1학년이 2백38명 (경주대 1백17명) 2학년이 2백28명 (경주대 68명) 3학년이62명 (경주대 14명) 4학년이 38명으로총 5백66명 (경주대1백99명)의 학생이 학사경고를 받아 전체 학생의 약6・6%를 차지하였다.

제적자의 경우는 1학년이 20명 (경주대 포함) 2학년이 27명 (경주대15명)으로 총43명 (경주대19명)이며 졸업정원제에 의해중도수료한는 2학년 학생은 14명 (경주대 10명) 이다.

<관련기사7면>

比노동성 장관 명예法博 학위수여

블라스 에프 오플레 (Bl as.F.Ople) 필리핀 노동성 장관 명예법학박사 학위수여식이 지난달25일11시 黃壽永총장, 李東林박사 (대학원장)를 비롯 관계직원1백여명이 참가한가운데 교수세미나실에서 있었다.

同장관은 제60차 ILO총회의장 (1975년) 제8차 아시아 태평양지역 노동장관회의의장(1980년) ILO아시아 지역회의 의장 (1980년) 직을 역임하면서 ILO총회, 국제회의등에서 아국의입장을 적극 지지하는등 한비양국간의 우호및 협력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本校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新 강의동 준공식

80년설계 3년만에 完工

이번 새 학기부터 4개 大學院을 비롯, 법정대와 경상대, 2부대와 기초과정부등이 새로 위치하게될 혜화관 맞은편 新강의동의 지공식이 오는 25일오후2시 이사장, 총장등 교내외관련인사들이 참석한가운데 있을 예정이다.

80년말부터 81년7월사이에 설계, 81년 11월28일 주식회사 금강에의해 기공되어 82년5월과 7월에 각각 1, 2차 설계변경등을 거쳐 82년 12월31일 총5천1백51평으로 공사완공 되었던 同건물은 1년여의공사기일과 총37억7만2천1백31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어 준공하게 되었는데 준공식에서는 시공자대표 (주식회사 금강대표) 정상영씨와 현장소장이었던 이내섭씨에게 감사패를 증정할것이며 금강에서 증정한 기념탑을 참석자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李瑄根 전총장 別世

지난달 9일 老患으로

本校 제8대총장(70~74)을 역임한 霞城 李瑄根박사가 지난달 9일밤 강남구 논현동 자택서 老患으로 향년78세로 별세했다.

초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故李박사는 우리나라 史界를 이끌어 온 원로사학자로「韓國最近世史」「花郞道硏究」등 24종36권의 저서를 남겼다.

故李前총장의 유해는 지난달 13일오후3시 장례위원장인 황수영총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가 참석한가운데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경주대 冬季봉사

1월23일에 終了

경주대학의 의료봉사활동서클인 동현과 청심에서는 지난 1月 9日에서 22日까지 경남 거창군 위천면일대와 충남 공주군 유구면 일대에서 동계방학중 봉사활동을 각각 실시했다.

50여명의 학생과 의료진이 참가한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예방과 치료, 환경위생, 생활 지도등 농촌생활 전반에 관한 봉사활동을 벌여 약 2천여명의 주민을 진료하는 성과를 올렸다.

졸업앨범 배부

25일까지 생활과서

생활과에서는 82학년도 졸업앨범 및 졸업기념품 배부를 22日~25日까지 학생생활과에서 배부한다.

▲22日=불교대・농과대(오전) 문리대 (오후) ▲22日=법정대(오전)경상대 (오후)▲24日=공과대(오전) 사범대 (오후) ▲25日=이부대 (오전) 순으로 배부되며 수령자는 학생증 또는 기타 신분증, 인장을 지참해야 한다.

전국高校 일어교사

1월26일 연수수료

문교부지정 本校부설 전국 고등학교 일어과 교사 연수수료식이 지난달 26일 10시 교수세미나실에서 金翔奎교수 (교무처장)을 비롯, 本校 日語科敎授및 고등학교 교원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있었다.

本校 박물관

대야2점 기증받아

지난달 22일 安東五씨가 청동대야와 청자대야 2점을 黃壽永총장을 통하여 본교박물관에 기증했다.

寺地부근에서 출토된 이 대야는 고려시대말로 추정되는데 청동대야는 구경이 44・9㎝ 저경22・5㎝ 높이 9・4㎝로 원형이 그대로보존, 저부만 균열이조금있고 청자 대야는 구경 43・2㎝ 저경 28・1㎝, 높이 12・3㎝로 시유상태는 불안정하고 구형부 일부가 훼손되어 있으나 대야의 변천과정을 알수 있을뿐 아니라 사학과 학생들의 고고학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있다.

현재 본교박물관에는 국보보물들등 총 2천 8백여점이 진열 보관돼 있다.

전산원 7회 卒業式盛了

지난10일 중강당서 실시

전산원 제7회 졸업식이 지난10일 중강당에서 黃壽永총장, 安慧明전산원장을비롯한내외귀빈, 졸업생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있거행되었다. 국민의례로 시작한 이날 졸업식에서 김정자양이 수석졸업상을 받았으며, 최홍종학생회장을 비롯한 각써클장, 각반대표등 20여명이 공로상을 받았다.

한편 졸업생7百19명중2百95명이 기사자격증을 획득하여 졸업하였다.

보리수

自身에의 忠實

大學은 眞理의 殿堂이요, 大學人은 眞理를 探究하며 그것을 터득하고 그것이 社會속에 實現되도록 노력하는 高尙한 使命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佛敎에서는 그렇게 眞理를 탐구하여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을 智慧로워지는 일이라 하고, 그것을 터득하여 社會속에 眞理가 實現되도록 하는 일을 慈悲行을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佛敎의 人間理想은 智慧와 慈悲이 둘이 다 온전히 갖춰지는데에 있다고 하겠다. 우리 大學은 佛敎의 精神에 따라 세워진 眞理의 殿堂이다. 宇宙와 人間世界에 관한 眞理와 眞實을 어떻게 理解해야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三千年묵은 오랜 敎訓, 萬古不滅의 敎訓이, 우리 大學의 指標가 되고있다.

그 敎訓의 골자는「衆生들아, 너희 메마른 마음밭을 갈아라, 거기에 물끼가 흡족하여 축축히 적셔진 땅에 萬物이 蘇生하듯이 새싹들이 돋아나게 하여라」 하는 것이다. 「衆生들아 너희 마음의 正體, 너희 참된 마음의 能力, 그리고 너희 아름다운 마음의 形相을 믿고 사랑하며 따르란」하는 것이다.

옛 禪師 한분이 이렇게 마음을 노래했다. 「眞際(眞實된 마음의경지)의 땅을 밟았다. 涅槃의 하늘이 솟아 오르는구나. 衆生의 메마른 땅을 찾았다. 善逝(佛의 異名, 잘 가신 분이란뜻)의 지혜의 샘이 솟는구나」

그분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신다. 「아무리 좋은일, 다 한다 해도, 그마음이 진실되지 않으면 그하는 일은 하나도 成就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新入生諸君과 함께 지혜와 자비의 두 날개를 키우는 새로운 求道巡禮의 行脚을 시작하게 되었다. 무슨 學科, 무슨 專攻의 길을 택했던지, 그 길은 다 人生의 길, 自然의 길로 通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 羅針盤이자, 보호자요, 스승인 각자의 마음밭을 가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자.

眞理는 책속에도 있고, 말씀들 속에도 있고, 대자연의 景觀속에도 있고, 사람들 표정속에도 있고, 더러운 것, 미천한 것, 그 어디에나 다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보는이의 마음이 진실된 경우에만 똑바로 보이고 온전히 살아 움직이는것, 眞理를 탐구하는 절실하고 순수한 마음보다 더 귀한 보배는 없다.

<李箕永>

SAMSUNG 풍요로운 미래창조— 삼성전자는 신뢰받는 세기술로 미래를 개척하고 있읍니다.

고급 오디오의 국내최저가격 실현

15만원대

영・소노라마 탄생

기술혁신・가격혁명 제3탄

칼라TV, VTR에 이은 오디오 가격혁명—

삼성전자가 이번엔 "오디오"의 가격혁명을 실현, 15만원대의 고급 스테레오 시스템을 탄생시켰읍니다.

획기적인 기술혁신으로 회로부품을 완전IC화하여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더욱 향상시킨 영・소노라마— 대망의 가격으로 탄생한 영・소노라마로 "마이・오디오"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오디오의 최신패션—슬림 스테레오
새로운 개성을 창조하세요.
높이 13.4cm의 영・오디오 패션—젊은 감각에 어울리는 새로운 슬림(Slim)스테레오입니다.

새로운 칼라감각—블루, 오렌지, 보라
격조높은 실내 분위기를 꾸미세요.
블루(Blue), 오렌지색, 보라색등 새로운 칼라 데코레이션 실내 분위기에 맞는 가장 멋진 오디오・룸을 꾸며보세요.

음악출력 20W

'83 신제품 SM-5135 ₩155,500
(앰프+튜너+데크+턴테이블)

●회로부품의 완전IC화
●4가지 스테레오 기능이 하나로 집약된 최신 뮤직센터
●새로운 서구패션 평면유리 카바 채용
●원터치 녹음방식・소프트 이젝트방식
●정격출력 5W+5W

●권장소비자가격:₩155,500
※스피커 시스템 ₩22,500 별매

자매품 음악출력 40W의 고출력 뮤직센터 SM-3237
●정격출력:10.5W+10.5W
●권장소비자가격:₩295,000(스피커시스템 포함)

음향의 슈퍼리얼리즘
삼성스테레오
三星電子

서울지역 소비자보호센터:(본부)252-5194~8 (강남)843-3042, 3170(서부)714-5313~5 서울지역 문의:753-6169, 753-2246, 253-3072, 842-5969, 753-2249, 777-0209 지방소비자보호센터및 구입문의:(인천)2-8706(수원)6-1281 (원주)42-5497 (강릉)2-3340 (대전)26-7901 (청주)4-1375 (용성)2177 (광주)34-9411 (목포)72-0223 (전주)6-3131 (순천)2-5221 (부산)623-3008 (마산)5-9251 (진주)2-4237 (대구)752-8826 (포항)3-1924 (안동)2-3385 (울산)72-2974 (제주)7-0547

延烏·細烏와 天日矛가 古代 日本社會에 남긴遺産

洪淳鈺
<法政大교수·韓國政治史>

◈…한동안 國內를 떠들썩하게 했던 日本의 교과서 歪曲사건은 일순의 분노만으로 그칠일이 아니다. 自國의 근본도 없는 固有性造作을 위해 他國의 엄연한 歷史를 왜곡하는 日人의 무모성을 앉아서 탓할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자세로 역사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 註>…◈

日本史에나타난「天日矛」는「三國遺事」서유래

神功征伐은 왜구의해상노략에 대한 說話

歷史 歪曲중「神功皇后 三韓征伐」이 가장커

I、머리말

日本民族의 고유성유지를 위한 歷史의 조작은 그들의 국내사정이지만 그피해를 가장많이 입고있는것이 우리韓國이다. 그것의 가장 큰것이 소위「神功皇后三韓征伐」과 廣開土王碑文의 辛卯年條의 歪曲解釋이다. 現代에 와서는 신공의 征伐說의 頻多했던 고대 倭寇의 이야기를 勝利的으로 集約美化한역사적사실이 없는 說話라고 日本學界에서 定說化되다시피 됐지만 아직도 對馬島에서 北九州에 걸쳐서는 그뿌리가 民間에 남아있다고한다.

古代日本의 王權이라는 것은 일본이 여러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內海인 瀨戸(세도)內海沿邊의 漁夫(海人)들을 連合支配한것이 가장 활동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海人들은 역시 그 속성으로 풍요한 한반도를 노략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 後한 왜구의 대열의 성공을 비는 상징적 설화가 神功征伐이야기인데 이것은 일제시대 국민학교교과서에 넣어 被支配族 洗腦의 一次材料로 썼던 것이며 기타의 韓·日관계 역사해석도 이에 따라 일본의 우월성 유지쪽으로 방향이 정해 졌던 것이다.

大陸侵略과 함께 軍國主義가 한층더 했는데 그것의 支柱는 天皇을 現人神이라 하여天皇의 이름으로 國民들을절대복종시켜 그 體制를 유지하고 自由로운 歷史硏究도 했던것이다.

戰後發表들이 爆發하여 그天皇家의歷史를 江上教授는 任那王이 騎馬民族征伐式으로 日本에 건너가 崇神王朝를이루었다할程度로 日本歷史가 파헤쳐지고 있는데 정작 神功皇后가 新羅王子 天日矛의 6代 外孫女(近親婚으로 女系로 치면 7代外孫女)가 된다고 古事記에 明記되어있다. 神功은 없었다는說도 優勢한데 그렇다면 더以上 말할필요가 없겠지만 우선 그說話는 否定하고 사람은 있었다고 친다면 이야기는 해볼만하다.

日本史에서는 新羅王子 天日矛가 가서 相當한 足跡을 남긴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 三國遺事의延烏郎·細烏女의 說話가 連想이되어 그것을 中心으로 그와 關聯된것이 日本文化에 어떤 遺産을 남겼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A 延烏郎·細烏女說話
<三國遺事 卷一>

第八代 阿達羅王4年(157)에 東海岸에 延烏郎과 細烏女가 夫婦로 살았는데 하루는 延烏가 바다에 나가 海草를 따는데 홀연히 한바위(물고기라고도 한)가 나타나 日本으로 업고갔다. 日本國人이 이를 보고「이는 非常人이다」하고 이어 王으로 삼았다(日本帝紀를 볼때 前後에 新羅人으로 王을 삼았다는것이 없음으로 이는 邊邑의 小王으로 眞王은 아닐것)

細烏가 남편이 도라오지 않음을 이상히 여겨 찾아가 남편의 버슨 집신을 보고 또한 그바위에 오른즉 먼저와 같이 日本으로 가게됐다. 日本國人들 놀라 王에게 바치니 夫婦는 서로 만나고 貴妃로 삼았다.

이때 新羅는 日月이 빛이 없어져 日者가 奏하되「日月의 精이 내려서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지금은 日本으로 가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여 王이 使臣을 보내어 두사람을 찾아오도록 하였는데 延烏가 말하기를「내가 이나라에 온것은 하늘이 시킨일이니 어떻게 도라가겠는가 비록 그러나 貴妃가 짠 비단(細絹)을 가지고 가 祭天하면될 것」이라 하여 도라가 그대로 하였더니 日月이 다시 예와 같아저 그 비단을 御庫에 넣어두고 그 庫를「貴妃庫」라 하였으며 祭天所를 迎日縣이라 이를하고 또는 鄒新野라했다.

B、天日矛의 說話

①<古事記(日本)應神王紀

옛날에 新羅國主의 아들 天之日矛(아메노히보꼬)라는 사람이 渡來하였다. 그來歷은 新羅國의 阿具奴摩(아구沼)가에 한 賤女가 낮잠을 자는데 햇빛이 무지게처럼 그女子를 비치므로 한賤夫가 이상히 여겨 항상 그女子를살폈는데 그女子는 그때부터 잉태하여赤玉을 낳으므로 그것을 달라고하여 항상 허리에 차고 다녔다. 이사람은 山間에 農事를 짓고 있었음으로 일꾼들의 飮食을 소에 싣고 山中에 들어가다가 王子를 만났는데「너는 山中에가서 소를 잡아먹으려 하는거지」하고잡아 獄에 가두려하자 변명을 했지만용서하지 않음으로 허리에 찬 玉을바쳤다. 그리하여 王子는 그를 용서하고玉을 가지고 방에 두었더니 아름다운女子로 代하여 嫡妻로 삼았는데 그女子할상 여러가지 珍味를 마련하여 대접한으로 王子가 교만기가 생겨 妻를욕하자 그女子는「나는 너의 처가 될여자가 아니나 내 祖上의 나라로 가겠다」하고 작은배를 타고 도망하여 日本難波(나니와)에 留하였다. (이는難波의 히메고조神社에 받드는 阿加流比賣(아까루姬라는 神이다)

이에「아매노히보끄」는 그妻를 좇아渡來하여 難波에 이르려하였는데 그나루신神이 막고 들여보내지 않음으로 그는 돌아서 多遲摩(다지마)國에 이르러 그곳에 머물러…(장가가서 아들을 낳고 7世까지의子孫이름이 나오는데그 6代孫女는) 葛城의 高額比賣命(다까누까姬民)(이는息長帶比賣命(―오끼나가다라시姬民=神功皇后―筆者註)의祖上들이다)

이때 天之日矛가 가저온 物體는 玉의 寶라하라 珠 2貫 파도이르키는比禮(헌겁或칼―筆者註) 파도자르는 比禮 바람일으키는 比禮 바람끊는 比禮 奧鏡및邊鏡 合하여 8種이다 (이는 伊豆志大神社에 모시는 8種大神들이다)

②<日本書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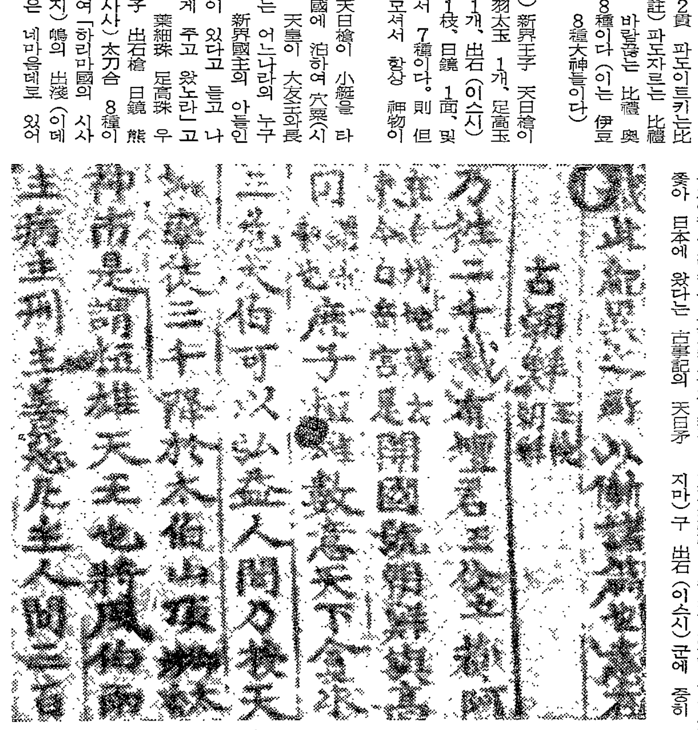
垂仁三年(BC27) 新羅王子 天日槍이 왔다. 가져온것은 羽太玉 1개, 足高玉1개, 우까가赤石玉1개, 出石(이스시)小刀1口, 出石桙 1枝, 日鏡 1面, 및熊神籬 1具 합해서 7種이다. 則 但馬(다지마)國에 모셔서 항상 神物이라 한다.

또한 말하기를 天日槍이 小艇을 타고 播摩(하리마)國에 泊하여 穴粟(시사와)邑에 있을때 天皇이 大友主와長尾市를 보내어「너는 어느나라의 누구냐」고 묻자「나는 新羅國主의 아들인데 日本國에 聖皇이 있다고 듣고 나라를 아우 知古에게 주고 왔노라」고 하며 바친 물건은 葉細珠 足高珠 우까가赤石珠 出石刀子 出石槍 日鏡 熊神甑및 膽狹淺(이사사)太刀合 8種이다. 그리하여 詔하여「하리마國의 시사와邑과 淡路(아와지)嶋의 出淺(이데사)邑의 이 두邑은 네마음데로 있어라」하였는데 天日槍은 啓하여「許港하변 내살곳은 몸소 各國을 돌아보아마음에 맞는곳을 주시오」하여 許可되었다.

이에 天日槍은 菟道(우지)河에서 거슬러 北方 近江(오오미)國의 吾名(아나)邑에 들어가 잠시 살다가 若狹(와까사)國을 經由하여 西쪽 但馬(다지마)國에 이르러 여기에 定着했다.

이로서 近江國의 鏡(가가미)谷의 陶人들은 즉 天日槍의 從者들이였다. (末尾에 妻와 高孫까의 系譜가 실려있다)

이 두이야기는 동일한것은 아니지만 해(日)와 관련해서는 서로 시사하는 바 있으며 日本側 西紀事는 비교가 되는데 ②日本書紀는 天日矛의 日本內의 經路는 자세하나 妻의 이야기는 없고 寶物의 수가 다르며 系譜에 있어서 古事記쪽이 자세하고 또 天日矛의 妻와 그寶物은 神으로 神社에 모셔진것이 古事記에 나온다. (이밖에 日本書紀에「쓰누가아라시도」란 大加羅王子가 妻를 좇아 日本에 왔다는 古事記의 天日矛 이야기와 비슷한 記事가 있는데 여기서는 略하고 이밖에 播磨와 筑前의 風土記에 6種의 天日矛說話등이 있다)



◇사진은「三國遺史」원본

II、日本에 준 影響

이兩神話에 엮여서 古代日本社會에 준 임펙트(impact)를 몇가지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A、신앙—오늘날 일본은 사찰과 신사가 많지만 당시는 불교가 들어가기 전이라 신도시대라 할수있는데 우선앞의 기사에 나온것을 포함하여「아까루姫」는 後地名으로 기내(首都圈)에져 유비매명신사(攝守口住吉郡 肖幣)비매허중신사(숙東生郡 明神大)의 제신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天日矛는 安界神社(近江國 吾名—金達寺을)御出石신사(但馬國出石郡 名神大)左支都比古·河流知命神社(尤人과 天日矛—但馬國 養父郡)및 敦賀와 城場郡(但馬)의 氣比神社軍에 모셔저 있으며 그가 가지고간 보물은 앞의 기사에 나오伊豆志坐神社 8좌(並明神大)로 但馬(다지마)구 出石(이스시)군에 중히 받들어져 있다. (延禧式神名帖)「아까루」는 또한「下照」라고도하여「明」의뜻으로 태양화과의 상징이며 延烏 細烏의 日月의 精이나 天日矛의「天」과「日」과 상통하는것이 일본의 천조인 천조대신이「天石屋戸」에 숨어 천지가 어두워졌다는것과 유사하여 천조대신의원형을 문화이동선상에서 볼수있을 것이다.

寶物에 關해서도 玉과 鏡·刀가 있어 日本의 三種神器와 같은 神主로서 모셔져있음은 注目한 일이다.

그리고 迎日의 都祈(도기—現在迎日即東海面都邱里는 이와關係가있는지?) 野는 濊音으로「도기」吳音으로「쓰게」로 都下(쓰게·도가)口(畿內 攝津口 西成郡)의 長官의 7歲以上의 童女만을 坐摩巫로 하여 宮中(水神)五社를 祭祀지내게 하는 것이라든지(水神을물가에서 日光에 威情하여 貴子를 낳는다는 信仰의 상징) 現大阪의 舊名難波(나니와)가 날(日)요 해도지(太陽始出)의「도지」(都祈)와 비슷함(金思燁박사說)이라든지 또는 나니와 땅에 斗賀野(應神東征때 敵軍이 기다리든곳)등의 이름이 보이는 것은 興味롭다.

B、宮中을 지배—天日矛가 왕자라고 日本史에 적혀있지만은 그는 拍當한 부하가 있었을것이다. 日本書紀의 經路外에 그는 하늘에서 高麗 오로山에 강림하여(筑前風土紀 五十迹條)일본으로가 北九州를 제압하고 瀨戶內海를 지나 播磨를 제압(播磨風土記 神前郡八千軍野條—8千名의 군대를 거느렸다 함)하고 왕과 타협한뒤 십장부 나니와의 淀川—宇治川으로 해서 近江口吾名(理草津)에 정착했다가 若狹—敎賀에서 배로 但馬口에 상륙하여 거기를 제패하여 出石地方에 정착한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정치적세력은 알수없으나 자손들이 상기 각지방에 번성하고 神功皇后를 낳기까지는 그 일파가 但馬에서 스스로「가쓰라기」(야마도地方)에 진출하여 일본왕가와 혼인이 됐으며 이로서 尾張氏 丸邇氏를 자녀로 萬城氏를 孫婦로 삼아 皇后出自族의 중추가 되었다(大和岩雄說)。그리고 궁중에 采女로 出石地方출신이 많고 또한 大嘗祭(王即位後의 첫추수를 감사하는 祭)에 古詞를 외우는「語部」로 다른지방보다 월등히 많게 但馬에서 7人 港路(天日矛子孫이 많이 삼)에서 2人이 출석함은(松本翠耕說) 일본歷史에서 할말이 가장 많은곳이 天日矛주변에 있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리라.

상기 東征路는 敎賀까지는 應神王의 東征과 거의 비슷하고 흥미로운 것은 應神王이 敎賀氣比神社에서 祭神과 이름을 바꾸어 신의이름이「이사사」(보물중 칼의이름)라하고 應神은「혼다와께」라 했다니「혼다」=火田=陽地」와「께」=產土(본인추측)으로 보면 이것은 都祈와 같은뜻이며 氣比神은 원래 日神이며 국토神이었으니 天日矛를 이름이 아닌가 한다。이것은 應神왕을 다론전제로 畿內정권의 제2왕조를 창립자로 보는說(水野說)에 어떤 구실을 제공할수도있고 더우기 井上교수의 應神의 데릴사위(入婿)설에는 好個의바침이 될수도있다。應神은 天日矛의 氣比神社族의 절대지지를 받고 정권을잡은 증거인지도 모른다. (天日矛자신이 바로 應神이 될수도있다)

天日矛의 종자들의 일부는 도공으로 近江國 鏡村谷에 남았다는 기사는 문화적공헌이지만 但馬出石남부의 絲井村 근처에는 철산이 있다하니 거기서 제철도 하야무기를생산하지 않았나싶다。

「氣比」(게히)는 本人의 推測으로는「賣妃」와 흡이 相通하지않나 싶고 或은 寶物로 가져간 熊神籬(熊神의神主櫃또는 熊皮의 神主櫃 또는 黑漆의神主櫃)의櫃=궤에서 由來된것일지도 모른다.

III、마무리

濱著 信仰의 元日矛命이라는 稱號는 勿論 日本側에서 붙인 것이겠지만 日本御用學者의 어떤사람은 대단히 선망하여 天과 日字를 最高의 命名이라하였는데 대개「天」字는 日本最高의 神인 天照大神과 그아들에게나 붙어있는 것인 까닭이지만 本來는 바다(海)와 日本에서는 通해야 大陸에서의 高文化人의 渡來와 關聯하였 음직한 것이며「日」字安亦是 天照大神의 원이름이 大日女란는것하고 比較하면 대단히 높은 것인 만큼 天日矛의 足跡은 日本古代社會에 큰 比重을 가졌던것 같다.

당시의 일본은「倭」의 시대로 중앙집권이 이루어지지않고 대단히 완만한 부족연합시대로 우리三國時代人이 건너가면 그高文化에 대해서 선망과 존경을 한 시대이며 지금같이 국가간의 원조를 할 현편이 못되었기 때문에 해적행위로 원시부족국가인 新羅·百濟의 南部海岸을 襲擊掠奪을 자주한것이 三國史紀 新羅 百濟本紀에 서기五百년경까지 전출하는 倭寇의 기사이며 三國이 서로 싸우면서 일방倭寇에 시달리는 현상을 빚은것이다. 임진왜란이나日帝36년으로 민족감정은 극히 나빠졌지만 古事記나 日本書紀등의(日本古代史冊)을 읽어보면 그들의 자기존대의어조만 빼버리면 거기에 상당한 量의三國人의 이름과 지명사전과 韓國文化의 요소가 나와 일종의 친밀감을 금할수 없고 또한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韓國학자들도 대거 참여하여 韓·日학계가 공동으로 이를 극복해나가야할 의무가 있는것이다. 이런뜻으로 本人은제한된 文書나 일본학자의 論說을 흥미로 독서하다가 느낀것을 이에 소개하는바이다. 따라서 本人의 추측이라한것이 旣發表分이라면 이해해주기 바란다.

사설

바람직한知性人되기를
—學位授與式에 부쳐

刻苦의努力과 精進을 통해서榮譽의學位를 獲得한 卒業生여러분에게 眞心으로祝賀의 뜻을 表한다.

民族의 私學, 民族 知性의요람으로 77個 星霜의 歷史와傳統에빛나는 우리東國大學校는우리民族 現代史의 起伏과 그軌를 같이하면서 그동안 國家社會에 수많은 人材를 배출해 왔다. 아울러 이번에도 都合 二千名에 가까운學士, 碩士, 博士를 養成 輩出하게 된것은 우리 東國의 慶事이며 國家社會의큰수확과기쁨이 아닐수없다.

그동안 여러분은 혹은 講義室에서 혹은 圖書館에서 혹은 實驗室에서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은 여러가지 與件과 制約을 감내하면서 불타는 向學熱로 勉學 奮發하여 오늘의 榮光을 얻게된점 다시 한번 同慶해마지않는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榮光이 있기까지에는 여러분의 勉學못지않은 協助의 德分또한 看過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가령 여러분의 뒤에서 희생적으로 보살펴주신 父母님의 恩功, 眞理探究와 人格陶冶의길을 가르쳐주신 교수님들의 勞苦, 그리고 特別히 여러분을 아껴온 國家社會의 恩澤과 優待도 있었음을 記憶해야할 줄로 안다.

이제 여러분은 그知識이나 人格으로보아 실력자가된것이分明하다.

그만큼 여러분은 選擇된 少數의 精銳다. 같은 年齡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혹은 공장에서 혹은 시장에서 혹은 農漁村에서 갖은 惡條件과 싸우면서 시달리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진리탐구의 상아탑속에서 때로는 浪漫과젊음을 謳歌하며, 때로는 時代의 아픔과 민족의 장래를 고뇌하면서도 그런대로 自由로운 學究生活을 영위해 왔고, 그 대가로 명예로운 學位까지 획득하였으니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만한 知性人이요 엘리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지식인이나 지성인이 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自慰하거나 만족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참다운 知識人으로 혹은 知性人으로 계속해서 이 社會의 지도자가되고 實力者가 되기위해서는 知性人다운 價値觀의 定立과 그에 부합하는 實踐이 要請되기 때문이다.

가령 大學을 卒業했다고 해서 그知識이나 기술을 마치 무슨 道具처럼 팔아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지식인도 지성인도 아니다. 그런 存在는 돈이나 權力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利用, 惡用할 수 있는 道具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더 例를 든다면 大學을 卒業했지만 盲目的인 理念이나 이데올로기에만 執着하는 사람들의 問題다.

그들은 現實社會의 구체적 삶의 苦痛이나 狀況은 外面하고 특정한 理念이나 이데올르기자체만을 옹호하고 强辯하려한다. 매우 독선적이고 狂信的이며 敎條的인 지식인이다. 이들도 진정한 의미의 지식이나 지성인이 아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지성인은 올바른 가치관과 批判的 안목을 가진 지성인이다. 그들은 늘 삶의 本質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보다 創造的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삶의 問題를 不斷히 회의하고 批判해보려는 진지한 努力을 보여준다.

그들은 모든 지식을 구체적인삶의 아픔이나 狀況과 연결시켜 보기도하고,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도 구체적인 삶의 現場과 苦痛에 결부시켜 判斷하려한다. 그들은 外向的인 社會批判에만 몰두하지 아니하고 內向的인 自己批判에도 가혹하고 철저하다. 따라서 우발적 충동이나 욕구불만으로 흥분하지않고 냉철한 이성적對話에 접근한다.

우리 社會가 要求하는 진정한 知性人은 이러한 사람들이 아닐까한다. 그들은 늘 겸손한 태도와 남과의 對話를 위한 자기개방의 지혜와용기를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理想과 現實을 調和할줄 알며 사회와 자신을 靜觀할줄 안다. 아울러 자기지식과 자기존재를 批判의對象으로 開放할 용기마저 가지고 있다.

이번에 卒業하는 여러분은 위에든 人間의 道具化나 맹목적 理念의 노예가 되지말고, 자신의 哲學의 삶과 價値觀의 定立으로 진정한 批判안목을 가진 지성인이 돼 주기를 懇望하는 바이다.

아울러 佛敎的 人格陶冶를 그 建學理念으로 하고 공부해온 東國人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전전한 社會良心과 人間의 존엄성을 重視하는 지혜로운지도자가되어야 할것이다.

이는 오로지 慈悲의 실천으로만 가능할줄안다. 慈悲는 봉사와 희생을 바탕으로하는 사랑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名門東國을 母校로삼은 여러분은 東國에서 연마한 學問과 慈悲精神을 토대로 이를 實社會에 投影하는 智慧로운 東國人이 돼줄 것을 거듭 당부하는바이다.

大学閑話

○自○己○表○現

尹綜善 <文理大교수·獨語學>

우리에게 전래되어 온 것 중에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많다. 코끼리를 만져본 장님들이 기둥처럼 생겼다는 등의 어리석은 의견을 말했다지만 사실 그들의 의견은 거기까지는 정확했던 것이다. 그 다음의 종합 과정이 없었을 뿐이다. 말없이 멍청하게 앉아있는 학생을 보고 선생은말이 없고 침착해서 얘가 됐다고 하나, 이 학생이야말로 문제아라고 보아야 한다.

대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표현력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오랜입시공부에 시달리다 보니 제때에 익혔어야 할 능력도 없이 입학이 되고, 무엇에 관하여 논하라는 난관에 부닥치고 마는것이다. 한번 얻은 지식은 발표력이라는 힘을 빌어 재생시키는 과정에서 정연하게여과됨으로써그생명을 얻는것이다.

요사이 대학의 강의량이 부족하다고 문제가 되어 있다. 강의가 그 분량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는가? 받아들이는 족의 그릇에는 문제가 없을까? 고등학교의 국어나 작문시간은 참으로 중요한데 대부분의 학생은 이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 있다. 영어나 수학의 점수에서남과 차이가 많이 나야 입학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여기에 있다. 국어교과서는 표본일뿐, 실은 원작등의 부교재가 그열배도 더 있어야 된다. 집에서읽고 학교에서 교사의 지도하에 일대 토론이 벌어져야한다. 토론내용을 근거로 각자의 방법에따라 필설로 종합정리하는힘을 길러야한다.

독일의 예비고사에는 작문이 두개 부과된다. 문학적인것과 사회적인것이다. 정답은 여러가지로 나올수있다.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에보다는 얼마나 조리있게 결론이 뽑아졌느냐에 점수가 좌우된다. 무엇이고 닥친 문제를 풀어내는 논리적인 힘이 바로 점수가 된다.

대학강의는 교수개인의 연구발표가 아니다. 학생은 교수의 처리과정을 본보기로 제시된 과제를 스스로 캐고 관찰 분석하여 독자적인 방법으로 결과를 발표할줄 알아야 한다.

필자는 구두로 강의한 내용이나 교재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놓은답안지에는 A점을 주지 않는다. 소화된 지식이 각자의 독특한 표현방법에 의하여 재정리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험장이 그 전날 얻은 복사지의 내용을 암기하여 옮겨쓰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병사 안내

83년 재학생 징병검사 연기원(병역법 제22조) 출원에 대한 안내

1、연기원 제출대상
①63년·64년 출생한 신입생및 2·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②59년1월1일이후 출생한자로서 대학원에 입학한학생. (일반·경영·교육·행정대학원생 포함)
③대학원생으로서 후기입학한 학생은 60년1월1일이후 출생한 학생에 한함.
④타대학(교)에서 편입학하여 제한연령내 졸업가능한자.
⑤④항의 규정에 의거 편입학한 자로서 전출입 승락서를 제출하고, 병사에관한 사항을 마친자에 한하여 연기가능.

2、연기원 제출기간
①83년2월21일~83년3월10일까지 제출(경주대학 동일)
②각대학원생은 83년3월15일까지 제출.
③위 기일경과및 추가제출자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것.

3、연기원 제출장소
①신입생및재학생:본교—학생과 경주대—학생과
②대학원생:각 소속대학원 교무과.

4、연기원 제출시 유의사항
①출원인(본인) 서명날인(반드시 인장으로 날인할것)
②최근 호적초본 (초)본 2통을 첨부하여 신 본적지에 출원할것.
③대학원 진학및 전문대졸업후 3학년에 편입학한 자로 징병검사를 받은 학생은 징병검사를 받은 본적지에 출원할것.
④기재사항은 호적과 동일하게 정확히 기록할것. (본적·주소 혼동및 한숫자 누수기재 불허)
⑤행정구역이 바뀐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신행정구역으로 정확히 기재할것.

5、신입생 및 재학생 징병검사 기일연기
①재학생 징병검사 연기원을 학교에 이미 제출한 학생은 징병검사 통지서를 통보받는 즉시 재학증명서를 본적지 구·시·읍·면에 제출하여 기일을 연기하고 징병검사를 받지말것.
(연기원제출 확인서를 교부받은 학생은 연기원출원확인서를 제출할것)
②대학(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징병검사를 받아 입영명령이 된자로서 대학원에 입학또는 대학에 편입… 사본과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본적지 구·시·읍·면에 입영기일 연기원을 제출하고 83년3…
병형사연기원서를 재제출할것.

6、재학생 징병검사 수검원 출원
①재학생 징병검사연기원(병역법 제22조)을 제출하여 징병검사연기를 받고있는 학생이 징병검사를 받고… 행규칙제49조) 징병검사 5일전까지 해당본적지 구·시·읍·면에 신체검사수검원을 제출하면 징병검사…
②징병검사 수검원을 출원하여 징병검사를 필한 학생은 재학생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취소되며, 일단… 사항의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각별히 유의할것.
③신체검사 수검원을 출원하여 징병검사를 필한자가 조기입영을 원할시에는 우선 징집원을 본적지 구·시…

7、우선징집원 출원
재학생 징병검사연기 미출원자 또는 수검원출원자로서 징병검사결과 징집등급 1·2등급(현역병 입영…) 영을 원하는 학생은 징병검사장 또는 본적지 구·시·읍·면의 징병종결처분 개시5일전까지 우선징집… ·읍·면에 제출하게 되면 조기입영조치하게됨.

8、84년도 졸업예정자 징병검사 안내
①재학생 징병검사연기를 받고있는 학생으로서 84년2월 졸업예정자(대학·대학원포함)는 83년도 본적지 구·시·… 드시 징병검사를 받아야함.
②본적지 징병검사일정 이전에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지못한자와 징병검사일정이 경과한 후에도 징병검사… 생은 본적지 구·시·읍·면에 본인이 신고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받고 징병검사에 응하여야함.
③84년2월졸업예정자(대학·대학원)는 졸업전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고 그 익년에 입영한다. (83년수검, 84년…

9、제1국민역 편입신고 안내(병역법 제11조)
①83년신고대상—66년생전원
②신고시기—주민등록발급시(학생은 발급후안 발급받을것)
③신고인—본인
④신고처—거주지동사무소
주민등록발급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66년이전출생자로서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학생은 조속한 시일내에 … 읍·면·동에 신고하기바람.

1983년2월 일

학 생 처 장

예비군 신상변동 신고(전출입자)

※대학원연구과정·대학직장예비군편성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대상
①83년1학기 복학예비군학생(대학원학생 복학자포함)
○신고기간:복학(등록)기간내(83년2월23일~3월24일)
○신고장소:학생과 예비군연대(경주대학·경주예비군중대에신고)
○본인준비사항:복학인증 또는 등록영수증1매 복사제출.
○대상자는 대학직장예비군 편성확인서를 발급받아 본인지참 거주지동에 제출(직장편성자·직장에제출)
※신고불이행자:대학직장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됨
②미등록 휴학(제적)및 해외파견자:발생과 동시 신고.
※위의 1항및 2항대상자로서 신고불이행자는 법제87조1항에의거 의법처리됨

재학생 예비군에 대한 편성확인서 발급

○대상:재학생 예비군으로서 83년1월(대년조)중 편성확인서 발급기간내에 거주지 동회제출용 편성확인서를 미제출한자.
○편성확인서를 예비군연대에서 발급받아 본인지참 거주지동에 제출할것.
○편성확인서 발급기간:83년2월21일~2월28일
※편성확인서를 거주지등에 제출치 않을시는 거주지등에서 [illegible] 주민등록말소가 됨

1983년2월 일

東國大學校

82학년도 碩士學位 受位者

◇大學院

▲권용갑(文學碩士)=「阿含의 業說研究」▲정인호(文學碩士)=「韓國禪家의 淨土觀에대한 考察」▲방귀희(文學碩士)=「佛教의 福祉思想에 관한考察」▲한승동(文學碩士)「John Dewey의 經驗에관한 認識論的 研究」▲안성호(文學碩士)=「Sartre의 存在와無에 對自存在와 自由의 間」▲김정화(文學碩士)=「東仁小說의 研究」▲유종환(文學碩士)=「金裕貞의 小說研究」▲임운(文學碩士)=「無影塔의성 構造研究」▲김은희(文學碩士)=「國語 二重主語構文說에 대하여」▲정의홍(文學碩士)=「鄭芝溶 詩의 文學的特性에 대하여」▲이진(文學碩士)=「退溪 李滉의 詩文學論」▲이규희(文學碩士)=「동의적 연결어미의 구문상제약」▲정영진(文學碩士)=「濟州方言의 終結語尾 研究」▲정신재(文學碩士)「未堂詩의 空間意識」▲배연형(文學碩士)「崔致遠의 四山碑銘의 文學的考究」▲신찬균(文學碩士)=「발탈의 民俗學的 考察」▲이복주(文學碩士)=「國語疑問法 體系의 史的考察」▲김연주(文學碩士)=「新羅歌謠에 나타난 意味考」▲채연기(文學碩士)=「STUBY OF PROBLEMS OF OPACITY IN INTERLINGUAL TRANSLATION」▲김형우(文學碩士)=「胡僧指空과 高麗佛教」▲최영애(文學碩士)=「俳優訓練도구로서의 假面의 利用과 效用」▲한세정(教育學碩士)=「學業 優秀兒와 不振兒의 學習樣式 比較研究」▲이장용(教育學碩士)=「羅末麗初의 社會變化와 教育」▲강창수(教育學碩士)=「中學生의 社會經濟階層과 學校環境및 價値觀과의 關係」▲정혜숙(教育學碩士)=「John Dewey의 實驗論에 관한 研究」▲이승우(法學碩士)=「日常家事代理權과 日常家事로 因한 債務의 連帶責任」▲윤태기(法學碩士)=「國民의 알權利」▲이기우(法學碩士)=「財産權의 保障에 關한 研究」▲김성준(法學碩士)=「國際法上의 人權保障에 關한研究」▲김성연(法學碩士)=「傳貰權에 관한 法理와 擔保物權性」▲김숙경(法學碩士)=「良心의 自由」

▲최용성(理學碩士)=「ZnSe 光刺戟發光에 관한 연구」▲정창섭(理學碩士)=「n-ZnSe 單結晶의 熱刺戟發光에 관한 研究」▲홍성열(理學碩士)=「흰ㄴ타리버섯 중의 Acid protease의 분리정제및 그 성질에 관한연구」▲홍성협(理學碩士)=「Alkali Halides수용액의 유전상수에 관한연구」▲한혜철(理學碩士)=액체CCl_4와 CS_2에 대한 기체의 용해도와 그 열역학적 성질에 관한연구」▲한정섭(理學碩士)=「IRON(Ⅱ)이온과 4-HYDROXY-1, 10-PHENANTHROLINE C-HELATE의 FORMATION CONSTANT의 결정」▲김우찬(理學碩士)=「A Study on the Asymmetrical Factorial Experiments」▲김재현(農學碩士)=「砒利板에 따른 木材流通 生産費 構成分析」▲김중배(農學碩士)=「미국 흰불나방의 生態에 관한 연구—SO_2 가스가 미국흰불나방의 生長, 羽化率, 産卵數에 미치는 영향」▲이순경(農學碩士)=「Salmonella typhi감염에의한 백혈구의 Chemotaxis能에 관한 연구」▲조우철(農學碩士)=「HISTOLOGICAL AND CYTOLOGICAL STUDIES ON THE MALE STERILITY OF ROTATO—solanum tuberosum L. var Irish Cobbler—」▲박경열(農學碩士)=「솔잎혹파리(Thecodiplosis japonensis U.) 幼蟲에서 분리한 絲狀菌의 同定」▲박광호(農學碩士)=Mouse 肉腹水癌(Sarcoma-180)에 대한 土龍製品의 動物生藥學的 效果에 관하여」▲고경숙(農學碩士)=「갈자·화분의 단기저장방법과 시비량에 따른 입성율에 관한연구」▲조성조(工學碩士)=「S·E·C 工法에 의한 콘크리트 強度의 增加에 관한연구」▲오인영(工學碩士)=「單位圖法에 의한 영산강馬勤觀測地點에 있어서의 流出量 分析에 관한연구」▲이호춘(工學碩士)=「자갈을 섞은 砂質土의 다짐에 관한 研究」▲민창식(工學碩士)=「FREE VIBRATION ANALYSIS OF SUSPENSION BRIDGE.」▲김채수(工學碩士)=灌漑期間中 洛東江流域에서의 降雨流出量推定에 관한연구」▲서형주(工學碩士)=「建築工事와 工程管理의 効率性에관한 考察—PERT\CPN 중심으로—」▲임의선(工學碩士)=「鐵筋콘크리트 보 構造의 材料強度와 工事費에 관한 研究」▲임정훈(工學碩士)=「建築凍結深度에 관한 研究」▲정복실(工學碩士)=「韓國産 食品乳化劑인 모노글리세리드의 理化學的 特性에 관한연구」▲권기성(工學碩士)=「꿩 난백 라이소자임의 아미노—말단 CNBr—펩티드의 아미노산배열」▲양규열(工學碩士)=「마늘의 脂肪質및 脂肪酸 조성에 관한 研究」▲정혜경(工學碩士)=「꿩 난백 라이소자임의 CNBr—펩티드 중 키모트립신 분해 펩티드의 아미노산 배열」▲조경련(工學碩士)=「市販 醱酵乳가 白鼠의 成長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研究」▲김현구(工學碩士)=「보리의 遊離및 結合脂質의 組成에 관한연구」▲김차일(工學碩士)=「經營合理化를 위한 生産性 測定및 分析에 관한 研究—D社의 事例研究를 中心으로」▲고홍승(工學碩士)=韓國的 品質管理 活動의 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변화성(工學碩士)=「確率的 需要를 갖는 Static Inveutoy시스템에 관한 研究—統計的接近을 中心으로—」▲구상찬(體育學碩士)=「JOGGING를 통한 成人의 心拍數 變化에 관한 研究」▲정길상(體育學碩士)=「跆拳道 訓練이 兒童들의 體力變化에 미치는 영향」▲박경란(가정학碩士)=「서울市 家族의 役割構造에 관한 研究」

◇教育大學院

▲조광영(教育學碩士)=「學校法人理事長이 期待하는 校長의 指導性에 관한 研究」▲이혁구(教育學碩士)=「綜合高等學校 教育課程에 관한 調査研究」▲이강세(教育學碩士)=「中等學校 教務分掌에 관한 研究」▲안종혁(教育學碩士)=「國語教育을 통한 愛國心함양에 관한 研究」▲김경희(教育學碩士)=「作文教育의 새로운 方向—中學校 國語教科書의 實用文을 中心으로—」▲최상락(教育學碩士)=「古典小說에 나타난 排清思想論」▲현순자(教育學碩士)=「孤山 尹善道의<五友歌>指導論」▲선희숙(教育學碩士)=「古代아테네의 奴隷制에 대한 研究」▲안길근(教育學碩士)=「行政上 損失補償制度에 關한 研究」▲이철기(政治學碩士)=「集團安全保障體制의 性格과 限界性에 關한 研究」▲이경애(政治學碩士)=「韓國政黨의 發展方案 研究」▲이일훈(政治學碩士)=「美國의 對韓軍事政策에 관한 研究」▲정동원(行政學碩士)「利益集團의 政策過程參與에關한 研究—全國經濟人聯合會의 事例를 中心으로—▲이환석(行政學碩士)=「사회지표의 체계와 활용에 관한 研究」▲손두일(行政學碩士)=「交通事故의原因分析과 그 對策에 관한 研究」▲강석필(經濟學碩士)=「金本位制度復歸論에 對한 小考」▲김영호(經濟學碩士)=「韓國의 期待物價上昇率과 長·短期 필립스 曲線」▲정용웅(經營學碩士)=「生産시스템 綜合을 위한 MRP適用에 關한 研究」▲이광재(經營學碩士)=「聯結會計制度改善에 관한 研究」▲길현창(經營學碩士)=「物價變動과 會計情報公示에 關한 研究」(會計情報利用者를 위한 提案)▲변정용(經營學碩士)=「An Auofomatic Template Generation in Portable C Compiler」▲정대구(經營學碩士)=「최소 자승법에 의한 DATA FLTTING 에서의 GROss ERROR 제거에 관한연구」▲이강재(經營學碩士)=「A Study on the Simplified Gompilation Schemes」—Compiling의 감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정명석(文學碩士)=「仁川市의 工業發達과 工業地域의構造」▲이영배(文學碩士)=「寺下聚落에 關한 研究—通度寺周邊을 中心으로—▲김영택(文學碩士)=「忠南 西部地域의 中心地에 관한 研究—洪城, 廣川邑을 中心으로—▲권동희(文學碩士)=「서울近郊花崗岩山地에 發達한 Tor 現象에 關한 研究」▲김성재(理學碩士)=「ON THE HAHN DECOMPOSITION AND JORDAN DECOMPOSITION」▲최정아(理學碩士)=「Aluminum 陽極酸化薄膜의 酸化條件과 電氣的 特性에 관한 研究」▲우용탁(理學碩士)=「Allaine 이온이 注入된PET의 熱刺戟 電流에 關한 研究」▲한태수(理學碩士)=Si 에 熱擴散된 Boron Depth Profile에 關한 研究」▲고정태(理學碩士)=「TSC 方法에의한 ZnSe單結晶의 Trap Energy Level에 關한研究」▲우연등(理學碩士)=「電子살 照射된 陽極酸化 薄膜의 電氣的 特性에 關한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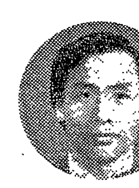
◇行政大學院

▲차홍운(行政學碩士)=「北韓의 對南軍事戰略에 관한 研究」▲김영재(行政學碩士)=「地方行政機關의 委員會制度의 效率的인 運營方案」▲윤재만(行政學碩士)=「韓國의 行政文化와 리더쉽에 關한 研究」▲김광부(行政學碩士)=「四强의 東北亞政策과 韓國安保에 관한 研究」▲김종호(行政學碩士)=「韓國政黨政治의 發展方案에 관한 研究」▲박명호(行政學碩士)=「國防豫算制度의 發展方向에 關한 研究」▲오재환(行政學碩士)=「民間團體의 青少年프로그램에 관한 研究」▲김민수(行政學碩士)=「民間團體의 社會行政에 관한 研究」▲엄승용(行政學碩士)=「教會成長과 教會行政에 관한 研究」▲안병용(行政學碩士)=「韓國地方稅行政에 관한 研究」▲양동숭(行政學碩士)=「精神疾患性 殺人犯罪에 관한 研究」▲이정학(行政學碩士)=「日本의 保健醫療政策에 관한 研究」▲이용훈(行政學碩士)=「行政管理에 體系分析理論의 適用에 關한 研究」▲유재현(行政學 碩士)=「都市의 開發制限區域에 관한 研究」▲김기춘(行政學碩士)=「韓國 TV放送의 自律統制에 관한 研究」▲김홍규(行政學碩士)=「系線組織과 參謀組織間의 葛藤問題에 關한 研究」▲진태승(行政學碩士)=「職業軍人의 福祉增進에 관한 研究」▲박희양(行政學 碩士)=「소련의 軍事力 增強이 韓國安保에 미치는 影響에관한 研究」▲송유창(行政學碩士)=「中共의 對韓政策과 韓中關係改善에 관한 研究」▲조용수(行政學碩士)=「韓國大學生의軍服務에 關한 研究」▲김용엽(行政學碩士)=「北韓의 後續體制에 관한 研究」▲이복(行政學碩士)=「韓國의 對美安保外交에 關한 研究」▲이중수(行政學碩士)=「警察의 政治的中立化에 관한 研究」▲김연식(行政學碩士)=「우리나라 科學技術의 開發戰略에관한 研究」▲김재오(行政學碩士)=「防衛産業製品의 品質保證에 관한 研究」▲장기오(行政學碩士)=「軍指揮官 精神化 教育訓練에 관한 研究」▲김회태(行政學碩士)=「軍內職業輔導·教育의 改善에관한 研究」▲전홍기(行政學碩士)=「中共의 第三世界 外交政策」▲이인희(行政學碩士)「美國의 對韓軍事政策에 관한 研究」▲조영철(行政學碩士)=「軍事專門教育制度에 관한 研究」▲이원석(行政學碩士)=「美, 北韓接近이 韓國安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研究」▲김홍규(行政學碩士)=「産業災害의 安全成績·測定·評價에 관한 研究」▲조윤구(行政學碩士)=「不安全行爲가 産業災害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調査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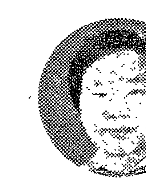
◇經營大學院

▲박완수(經營學碩士)=「人力運營에 關한 研究—職業軍人의 人力運營을 中心으로—」▲어재화(經營學碩士)=「韓國勞使關係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에 關한 研究」▲임칭수(인사노사관리)=「北韓 協同農場과 強制勞動에 關한 研究」▲전병창(經營學碩士)=「우리나라 産業의 賃金水準 決定에 관한 考察—生産性을中心으로—」▲허해욱(經營學碩士)=「勞使紛爭및 協力의 社會, 精神的 이슈에 關한 研究」▲정영수(經營學碩士)=「韓國醫藥品 流通經路에 關한 研究」▲박훈(經營學碩士)=「우리나라 中小企業의 生産性向上에 關한 研究」▲유영철(經營學碩士)=「品質管理分任組活動의 效率的 運營方案에 관한 研究▲이승재(經營學碩士)=「製藥業界의 品質管理에 관한 研究」▲이재완(經營學碩士)=「學校의 컴퓨터導入에 따른 問題點 研究」▲민은식(經營學碩士)=「民營産業 育成을 통한 輸出增大方案 研究」▲김유철(經營學碩士)=「우리나라 建設業의 海外進出에 對한 研究」▲김인수(經營學碩士)=「우리나라 輸出 클레임의 發生原因分析및 對策」▲황성열(經營學碩士)=「우리나라 換率制度에 관한 研究」▲허영업(經營學碩士)=「韓國電力의 電力料金決定에 關한 研究」▲백정림(經營學碩士)=「不動産登記의 公信力에 關한 研究」▲이석주(經營學碩士)=「住宅需要와 供給에 관한 研究」▲이동진(經營學碩士)=「轉換社債에 關한 研究—그特性및 市場分析 等을 中心으로—」)=「平等收斂과 連續과의 關係에 관한 研究」▲최문소(教育學碩士)=「無理數의 導入과 제곱근의 計算指導에 관한 研究」▲김회(教育學碩士)=「基數에 관한 研究」▲유상형(教育學碩士)=「高等學校 學生들의 學校에 대한 態度研究—高校生들의 上級의 次元에서—」▲최재규(教育學碩士)=「中學生들의 餘暇活動形에 관한 研究」▲곽석손(教育學碩士)=「小亭 卞寬植論—1960年代 作品을 中心으로—」▲하영식(教育學碩士)=「現代繪畵에 있어서 object의 登場과 그 展開」▲배영진(教育學碩士)=「幼兒美術의 材料研究」▲조돈구(教育學碩士)=「現代東洋畵의 胎動및 樣相—1950年代에서 1960年代까지의 主要作家를 中心으로—」▲이경수(教育學碩士)=「男子高等學校 運動選手의 授業實態와 問題分析」▲남궁병(教育學碩士)=「生活習慣이 健康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調査」▲김기호(教育學碩士)=「長期的인 訓練을 통한 射擊選手의 姿勢의 不均衡的 發達에 관한 研究」▲박해석(教育學碩士)=「人體의 股關節 可動能力과 跆拳道 발차기와의 關係」

82학년도 博士學位 受位者


◇文永午文學博士

◇姜在倫哲學博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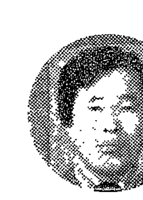

◇金恒培哲學博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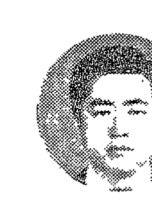
◇李炳華政治學博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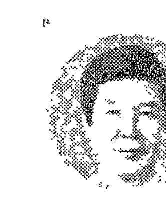
◇宋鍾辰法學博士

◇郭泳宇教育學博士

◇朱鉉圭理學博士


◇鄭碩鍾理學博士


◇李基善理學博士


◇金炳文理學博士

◇金東圭工學博士

◇李鍾鎭理學博士

◇博士學位

▲金恒培(철학박사)=「老子의 道와 德에관한 研究」39년 서울生, 58년 本校 철학과졸, 64년同大學院석사과정 수료, 72년 미국 S·M·N神學大學修學, 69년 인천교대전강역임, 76년 본교전강역임, 78년同大學조교수역임▲姜在倫(철학박사)=「Karl Marx에있어서 역사의 主體性에관한研究」31년 서울生, 55년 육사卒, 59년 서울문리大卒, 64년 同大學院 석사과정 수료, 83년 本校 박사과정 수료, 62년 육사 전강 歷任, 71年육사부교수歷任 75年중앙일보사부국장歷任 현재중앙일보사국장在任▲文永午(文學博士)=「孤山 尹善道의 漁詩研究」40年 서울生 66年本校國文科卒 72年同大學院碩士課程修了 77年同大學院博士과정수료 79年本校講師歷任 81年漢陽大講師歷任 현재그리스도神學大學官選理事 ▲郭泳宇(教育學博士)=「教育費分析에 관한 研究」36年 忠南生 58年 서울大行政科卒74年 日등경 고이꾸대학 대학원碩士課程修了 83年 本教大學院博士課程修了, 61年금산농고교사歷任, 67年전북여고교사歷任, 76年교육공무원인사위원歷任, 82年전·북사대교육학과장歷任, 현재 전북대학부교수在任 ▲宋鍾辰(法學博士)=「古代 印度宗教의 自然法思想研究」, 28年서울生, 46年춘천사범졸, 73年명지大行政科卒, 76年本校經營大學院碩士課程修了, 79年同大學院博士課程修了, 51年 전주지방검찰청검사歷任, 53年서울지방검찰청검사歷任, 60年부산지방검찰청·검사歷任, 68年 서울지방 검찰청부장검사歷任, 74年 대검찰청歷任, 79年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歷任, 80年의원면직, 현재 변호사在任。▲李炳華(政治學博士)=「韓國國會의 經濟立法 決定過程에 關한 研究」, 40년 서울生, 64년본교 정외과卒, 71년 연세대학교대학원교육학석사과정 수료, 79년본교大學院박사과정 수료, 73년원주大강사 역임。▲金炳文(理學博士)=「ON THE 3 MANIFOLDS ASSOCIATED WITH HEEGAARD SPLITTINGS」 30年 忠南生, 53年 서울文理大卒, 79年本校大學院碩士課程修了, 82年學院 博士課程修了, 61年 忠南同大大전강 歷任, 70年 同大學부교수歷任。▲李基善(理學博士)=「高効率 COMSAT NON-REFLECTIVE 太陽電池의 製造 方法및 그特性에 관한 研究」, 38年京畿道生, 64年서울大物理學科卒, 74年英옥스포드대학 대학원碩士課程修了, 79年인하大學校大學院碩士課程修了, 82年本校大學院博士課程修了, 73年원자력연구소연구사 歷任, 73年서울大강사, 80年태양에너지연구소기획실장역임, 현재한국동력자원연구소책임研究員, 太陽光研究室長在任▲鄭碩鍾(理學博士)=「$SrO-Al_2O_3B_2O_3$ 유리계의 구조와 물리적 性質에 관한 研究」, 40年全南生, 63年全南大物理學科卒, 68年同大學校大學院碩士과정修了 80年本校大學院博士課程修了 74年全南大전강歷任 79年同大學조교수歷任·현재 同大學부교수 在任▲朱鉉圭(理學박사)=「人蔘粕및 그 抽出物이 生體에 미치는 營養學的 效果에 關한 研究」, 35년 충남生, 60년 고려대농화학과卒, 68년 건국대학교大學院석사과정 수료, 81년 본교大學院박사과정 수료, 72년 건국대전임강사 82년 同大學부교수, 현재 同大學교수。▲李鍾鎭(理學博士)=「미국흰불나방의 變態에 따른 有機및 無機物質代謝와 性페로몬에 關한 研究」52年서울生 75年建國大生物學科卒 77年同大學院碩士課程修了 82年本校大學院博士課程修了 75年建大부설기초과학연구소研究員 80年尙志大강사歷任 현재新丘專門大學강사在任。

▲金東圭(工學博士)=「鋼管柱의 彈塑性擧動에 關한 研究」, 36年서울生, 60年서울大건공科卒, 現서울시립大 부교수在任。

水面이 조용히 움직이듯이
遺稿集·최인희著

書評

京國文壇이라는 표현이 도무지 생경하지 않는까닭은 量과 質이 명실공히 더높은 所致이겠다. 더구나 詩人群은 가히밤하늘의 星座를 방불하고도 남음이있다. 이 별들중에 워낙 돋보이는 先彩를 일찌감치 다하고가뭇없이 입을다문 同門詩人에 崔寅熙가있다. 이제 그의 遺稿集<旅情百尺>이 遺族과 知人 弟子들의 정성으로 엮어져 그의 詩才를 새삼 맛보게 해주었다.

詩人의 보람 중에 하나이겠지만, 여타의 다른 호사스런 명성과 달리 詩人은 갔어도 남긴 詩는 더욱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구차하게 이력으로 연명하는 졸장부에게 더욱 부끄럼을 가르쳐 주는 이遺稿集을 대할때, 감회와 애석에 앞서 그 詩가 건네주는 馨香은자못 아스라하다.

그의 詩는 <복사꽃이피어서 쏟아지는 湖畔에서/크나큰 水面이 조용히 움직이듯이>(「靜夜」에서) 섬세하고 정밀한 感性의 무늬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시들지 않아 삶에 充實하고 곧은 者 열매처럼/익어서 그 品格만 이 香氣롭>(「열매」에서)기도 한 곧은 척추를지탱하고 있으며, <자타오르는 樹木에 나직히 손잡고 서서 아침 인을 방울지는 點光 속에 마침내 山上에 높이 揭揚된 旗幅를 바라본다/펄, 펄, 펄 限없이 나부끼는 소리(「아침의 노래」에서)에 실리는 그의 암팡진 품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채로운 노래를 부르지만, 그 가락은 한결같은 '音色'으로 일관되고 있다.

이마에는 푸름만 있을 뿐이다.
멀리서는 솔 하나 풀 하나 보이지 않는 대로
오직 세월과 그 자신을 믿을 따름이다.
틈이 솟지 않고
들을 하나 마음에 지니지 않은 아쉬움이런들
원 몸을 깎아가는 風雪에 우슴지어
밤이면 밤마다 별이감박이는 이마 위에
내일을 위하여 햇빛을 기대린다.
—「언덕」에서—

「자신」을 믿되 어디까지나「세월」과더불어 한다함은 그의 겸허한 歷史意識을 읽을 수 있겠고「돌 하나」도 내 마음에 지니지 않는 그의 無垢와「원 몸을 깎아가는 風雪」도 견디는 곳꼿한 氣槪를 가지고「내일을 위하여 햇빛」을기다리는 안타까움은 오히려 和平하기조차 하다.

이리하여 그의 詩속에서 항상 靜中動의 구성을 보여 준다. 깊은 深淵의 水面은 맑고 잔잔한 법이다. 그의 詩想의 열렬함은 짐짓 <靜思와 凝示와 忍耐性>(「열매」에서)으로 다독거려진 참한 열매로 맺어지고있다.

섬세하고 정밀한 感想의 詩

이번 遺稿集에는 47편의 詩와 미발표長詩「旅情百尺」외에도 주옥같은 그의 수필 10여편이 담겨 있어, 그의 文學을 송두리째 볼 수 있게 하였다. 감히 <아까운>詩人이라고 그 관형어를 붙여두고자 한다.

崔寅熙詩人은 1950년 <文藝>誌에「落照」등으로 추천받아 登壇, <靑葡萄>同人으로 활동하다 1958년에 33세로 他界한 同門詩人이다.

遺稿集 <旅情百尺>은 1982년11월, 가리온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

崔淳烈 <同門詩人 韓國文學研究所 研究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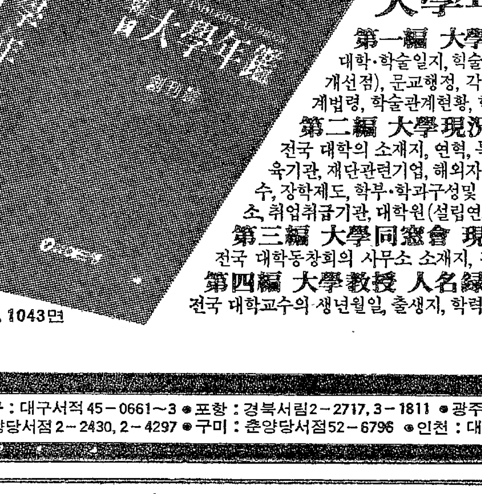
鹿野苑
一罰百戒

▲人間의 罪를 罰할수 있는 법률이나 도덕, 규칙은 대단히 많다. 따라서 罪를 罰하는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원시사회에는 도덕 관습만으로도 조직사회의 질서가 유지될수 있었지만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빈부의 차이가 심해 질수록 자기것을 지키고 조직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법률은 사회가 복잡 비대화 됨에 따라 더욱 세분화·다양화 되어 갔으며 규칙이나 규정이 잘 짜여진 조직일수록 튼튼한 조직력을 지닌 조직이라 믿어왔다. 또한 人間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인 존경과 믿음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덕이 있다. 특히 오랜 유교사상에 젖어 있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이와같은 윤리정신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우리는 법률이나 규칙 도덕등을 지키기위해 어릴때부터 많은 교육을 받아왔고 그 때마다 교육적 강화로 잘못된것은 완전한 자기의것으로 만들기위해 노력했으며 잘못된것은 몇번이고 고쳐나가려 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칠수 있는교육적단계를 벗어 났을 때는 엄한 벌을받게된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죽음의길에서도「惡法도 法이다」고 말할만큼 法은 신성하고 위력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法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운영하는 방법은 훌륭한 법을 만드는 작업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흔히 어떤 특정인의 罪에대한 罰을 내리는 과정에는「一罰百戒」란말을 자주 사용한다.「一罰百戒」란 한사람의 罪를 罰함으로써 그것이 귀감이되어 백명의 사람들을 계도한다는 뜻이다. 교육적차원에서 볼때매우 효과적인 방침이다. 그러나「一罰百戒」를 적용하는 대상이나 시기, 방법에 따라 많은 효과의 차이를 가져올수 있다. 가령조그만 실수로 인한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는 사람에게「一罰百戒」를 적용한다면 백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천명을 잃는 결과가 될것이다. 또한 어떤 범죄행위가 만연해서 정말「一罰百戒」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무거운 罪를 지은 사람은 그냥 두고서罪質이 가볍고 나약한 사람에게 내려진다면 이것은 더욱 잘못된 일이다. 예를들어 얼마전 주부관광단의 日本쇼핑관광으로 각 매스콤이 떠들썩한 일이 있다. 평소에는 묵인해 왔던 일이 日本신문에 실린 조그만 기사로 인해「一罰百戒」형식으로 책임지워져 사온 물건이 압류되고 관련자가 문책을 당하고 특별교육을 받는 등으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그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그들이 많은 상품을 무더기로 사와야 하는 이유와 문화를 배우고 견문을 넓혀야 하는 외국관광이 쇼핑으로 퇴색되는 근본적 원인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렇듯「一罰百戒」가 단순히 罪를 罰하는 단계에만 머문다면 진정한 계도가 될 수 없고 전시효과를 노린 형식상의 일이 되고 만다. 따라서 하나의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물이나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한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의 치료가 필수적이다. 결국「一罰百戒」는 어떤 경우에든 罰하는 대상이나 시기방법 모두가 귀감이 되는 설득력을 지닐때 문자 그대로「一罰百戒」가 되지않을까 한다. <熙>

韓國 大學年鑑

여기 한국 대학연감 창간호에는 한국지성을 대변하는 모든 것이 있읍니다.

지성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과 도서관에 파묻혀 있는 대학생들의 면학열기. 그래서 흔히 대학은 지식의 샘터라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면서, 고급인력의 수요는 날로 증가해 가고 기업의 사활은 고급인력의 확보에 달렸다는 말도 있읍니다. 그래서 사회나 기업 모두 대학의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전국에 걸쳐 240여개에 달하는 대학들의 정보를 모두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 대학연감 창간호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학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판되었으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학의 모든 것, 즉 대학 교육 전반에 관한 현황과 학생수, 대학동창회의 활동상황, 그리고 전국 대학교수들의 출신교및 전공등이 모두 망라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한국대학의 모든 자료가 집대성된 한국 대학연감 창간호는 대학교육의 발전적 밑거름이 되는것은 물론 사회·기업과 대학간의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드릴 것입니다.



값 50,000원
4×6배판, 호화양장, 1043면

大學年鑑 收錄內容

第一編 大學槪況 —— 31 p.−224 p.
대학·학술일지, 학술연구(대학의 이념과 기능·대학교육발전사·서구의 대학입시제도와 우리의 개선점), 문교행정, 각종 대학현황, 세계의 대학, 주한외국공관, 포상기록, 대학100년사, 대학관계법령, 학술관계현황, 학회일람, 교육·교직원관계단체, 각종 대학관계통계·표.

第二編 大學現況 —— 241 p.−546 p.
전국 대학의 소재지, 연혁, 특색, 발전계획, 교훈, 설립자, 재단명, 이사장, 총학장, 행정기관, 재단관련교육기관, 재단관련기업, 해외자매대학, 대학예산총액, 전교지면적, 전교사면적, 교직원수, 재학생수, 졸업생수, 장학제도, 학부·학과구성및 학과별 교수명단, 특수학과소개, 대학축제, 서어클활동,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취업취급기관, 대학원(설립연도, 원장, 설치학과, 졸업생수, 박사학위수여자수).

第三編 大學同窓會 現況 —— 571 p.−656 p.
전국 대학동창회의 사무소 소재지, 활동상황, 회원수, 임원명단.

第四編 大學教授 人名錄 —— 675 p.−1043 p.
전국 대학교수의 생년월일, 출생지, 학력(대학·대학원), 박사학위(학위논문), 현직(담당과목), 주소 및 전화번호.

株式會社 애드영
대학연감편찬위원회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3~7 서울 빌딩307호 ☎274-5911~3
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537 동북빌딩1001호 ☎783-1541~5
●부산지사23-7685·대구지사23-9554·광주지사363-2346
서울총판 : 여의서적센터 ☎782-3682

● 대학연감총판 ● 서울총판 : 여의서적센터782-3682 ● 부산 : 화신서적 88-2468, 802-2255 ● 대전 : 도산서원22-5187 ● 대구 : 대구서적45-0661~3 ● 포항 : 경북서림2-2717, 3-1811 ● 광주 : 대광도서2-0720 ● 전주 : 한국서적2-8491, 6-0523, 2-6472 ● 이리 : 대한서림2-0747 ● 진주 : 청구서림2-2436 ● 마산 : 학문당서점2-2925, 3-0733 ● 천안 : 등방서림2-3314 ● 강원 : 진명서적272-5871~7 ● 김천 : 춘양당서점2-2430, 2-4297 ● 구미 : 춘양당서점52-6796 ● 인천 : 대한서림72-7337, 75-3331~2 ● 수원 : 등아서적5-6436 ● 울산 : 동아서림3-4594, 2-2485

찬란한 슬픔의 小鹿島

뭍으로 나가 섞여사는것이 所望

의료진증강및 노후화된 치료시설 개선시급

「하늘의 벌」이라는 사회적 편견 바로잡아야

소외된 삶, 소록도를 찾아…

흔히 癩病은 天刑의 병이라고 했었다。 나환자는 이 굴레속에서 정다운 가족 친지와 헤어져야 했고 사회의 냉혹한 시선을 한몸에 받아야했다。 그러나 이제 나병은 다만 만성전염병일 뿐이다。 오랜 오해와 편견의 역사는 이제 청산되어야 하겠다。 소록도에는 녹동국민학교 녹산분교 어린이3명이 천진난만하게 뛰놀고 있다。 이제 막 피어나는 이 어린 싹에게 누가, 왜, 天刑이라는 멍에를 씌워야하는가。「몰라3년, 앓아3년, 썩어 3년」이라고 누가 표현했듯이 잠복기간이 10년이 넘는 이병은 환자자신도 모르고있다가 갑자기 나병의 선고를 받은적이 많았었다。 이들은 절망과 전신을 초토화하는 질병과 싸우면서 뭉그러진 손에 호미를 묶어서까지 밭을 갈며 성실하고 착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있다。 또한 환자와 동화되어 숭고한 봉사를 보여주고있는 소록도사람들,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룩한 왕국,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았다。 <편집자註>

공동 취재반
박성태 企劃部長
남 선 記者
최사견 記者

天刑, 흔히 우리는 癩病을 천형의 병이라고를 한다。 세상사람들은 과거에 이러한「天刑」이라는 굴레를씌워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에게서 웃음을빼앗았으며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혀 야멸찬 눈초리로 쏘아보며 그들을 어두운 그림자속에 빠져들게 하였던것은 사실일게다。

人類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한것으로 추정되고있는 이질병은 古代의 기록들에도 잘나타나고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심지어는 어느종교의 이야기에까지 이병은 죄악의 상징으로써「하늘의 벌」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제 이질병에 대한 오랜 오해의역사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것같다。

그러나 恨많은 이들 나병환자의 삶을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너무나도 먼 느낌이다。

소록도로 가다

天刑의 섬 小鹿島, 대한민국 유일의 국립나병원이 있는 소록도에서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의 삶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 우리네 삶에 비춰볼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것이다。

서울에서 밤새 열차로 달려 광주역에 도착한 시간은 정확히 새벽 5時, 아침을 먹는둥 마는둥 하고 일행은 다시 녹동행 버스에 몸을 실어야했다。 유난히 커브가 심한길을 3時間 남짓 달린 후에야 녹동에 도착할수 있었다。 그제서야 아침안개가 걷히고 날이 밝았다。

소록도는 녹동 바로앞의 섬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

고흥반도 끝의 녹동부두에서 서쪽으로 6백여m 떨어진 이 섬에 수시로 운행하는 병원선과 민간이 운영하는 도선을타고 5분이면 닿을 수 있다。

나병환자들이 병고와 싸우고있는 이 섬은 들어가기조차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일단 한번 발을 들여 놓고보면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조용한, 그리고 엄숙한 정적마저 감도는 것같은 이 섬안의 풍경에 아마도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실 기자도 소록도에 발을 딛기전까지만 해도 사뭇 단단한 각오(?)를 해야 했었다。 알지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아니 癩病에 대한 두려움이였을 게다。 녹동항에서 도선에 올라 소록도에 내릴때까지 줄곧 긴장하고 있었다。 옆자리에는 몇가지 생활필수품을 사가지고가는 한 할아버지가 탑승했었는데 장갑을 낀손이 굽어 있는것을 볼수 있었던 것이다。 취재를마칠쯤에는 癩에대한 두려움도 가셨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다。 역시 인식부족에서 오는 사회의 편견이 문제인듯 싶다。

이 섬에 들어가려면 병원장의 상륙허가를 얻어야 한다。 우리는 선착장에 있는「제1안내소」에서「체류자출입증」이라는 것을 받았다。 그곳에는「방호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방호원은 경비를 맡고있는 고용인。 안내소, 옛의 경고문에「관광지가 아니라 환자지역」이라는 귀절이 인상적이었다。

이 섬은 환자지역과 직원지대(일부근)로 나뉘어져있는데 환자지대에들어가려면 경계되는 위치에 있는「제2안내소」를 거쳐야한다。

섬 전체가 하나의 병원인 소록도。 1916년 일본이 나환자를 강제로 수용하여「소록도 자혜의원」을 세운 데서 이곳 나병원의 역사는시작되었다。 68년「국립나병원」으로 개칭하여 국내유일의 나병원이 되었다。 그러던 것이 올해 83년에 다시「국립소록도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5·16이후에도 이 명칭으로 바뀐바 있다。

환자의 생활

이 곳의 환자수는 현재 정확히 2천7백74名。 이들 환자는 치료본관의입원실과 비교적 시설이 양호한편인 양지회관, 결핵병동, 정신병동, 맹인병동, 신병동,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일반병동에 각각 수용되어 있다。 이들에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곧 임원실이기도하고 그들의 마을이기도한것이다。 환자마을은 9개마을로 나뉘어져 있는데 장안리, 신생리, 동생리, 중앙리, 남생리, 서생리, 구북리, 새마을, 양지마을등 소생의 의미를 갖는지명이 인상적이다。

병원 인력부족으로 환자들중에서 비교적 건강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병원 행정을 돕도록 하고있는데 그것이 바로「환자조무부서」이다。 복지과의 지도를 받고 있는 조무부서는환자대표로 統長을두고 총무부, 지도부, 산업부, 특별활동부를 두고있으며 각마을에 里事務所를 두고 있다。

환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소록도병원의 83년도 을해 예산총액이 약 41억4천만원인데 이들에게 주·부식비로 지급되는 액수가 예산의 약45%인 18억3천6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환자 1人당 하루 예산액은 1천6백원 정도。 주식비가 4백95원, 부식비 7백58원, 연료비 1백12원, 그리고 피복비, 일용잡품비, 그리고 약품비 1백30원도 포함돼있다。

이들은 또 겨울에는 하루 2개꼴로 연탄을 배급받아 취사와 난방을 할수 있다。 그러나 主·副食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족한 편이다。

이들에겐 각자 개인에 배정된 농경지가 있다。 한사람이 약1백36㎡의 땅에 야채류와 마늘등을 재배해 자급하기도 한다。

환자들은 소록도 내의 한정된 단조로운생활과 장기치료에 따른 권태및 일반사회에대한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 병원측에서는 이를 해소시켜 생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치료효과도 높이기 위해 매월 직원과 환자들의 합동생일잔치를 베풀어 주기도 한다。

이곳의 가장 경사스러운 날은5月17일인 개원기념일이다。 이날은 직원지대와의 경계선이 활짝열리는 날이기도하다。 운동장에서는 전국 정착장대항 체육대회등이 펼쳐지고 환자가족, 친지들이 이날 수만인파로 들뜨게 된다고 한다。

음성으로 완전 치유되었으나 정착자활동의 사회복귀가 불가능한 노령자와 신체장애자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은이곳에 같은 처지의 남녀끼리 짝을 지어 서로돕고 의지하며 살고있다。 현재 동거자수는 과반수가 넘는 6백70여쌍이나 되고 였다。 가임환자의 경우는불임시술을 권장하고 있다。

가족과 친지간의 면회및 통신연락등은 일반사회인과 같이 자유롭게 하고있다。 하루평균 13명꼴로 면회자가 있으며 매일80여통의 편지가 오간다。 또한 일반전화도 35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송수금도 연간 1억원정도에 달한다。

外出은 陰性의 비교적 건강한 환자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치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를 병원당국에서 허가해주고 있으며 양성환자는원칙적으로 外出을 금하고 있다。 일용품을 구매하기 위한 당일외출로 있으며 대부분 외출자는 친가와 친지들을 방문하기위한 귀성자들이다。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의 거의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조그마한 섬에 교회가 10개나 된다。 이들은 새벽 4시면 모두 눈을 뜬다。새벽기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다른데선 볼수 없는 특이한「附添人」이란게 있다。 부첨인이란 중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사람으로 환자중에서 비교적 건강한 자를 선정하게되는데 이들은 식사, 세수, 용변, 배정된 농경지의 경작등을 돌봐주고있다。 그런데 최근 비교적 건강한 환자들의 정착퇴원이 증가하고 있고 신입환자 대부분이 양성또는 불구노약자여서 도움을 필요로하는 환자가 늘어나 부첨인의 인력확보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같다。

각종 관수물품의 하역, 도로보수, 환경정리등의 새마을사업을 하고있는 건설대로 조직되어있다。 이들 건설대원은 60여명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들은 국가에서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기는하지만 이섬의 농경지를 활용해 경작활동도 하고있다。 약60만㎡중 4만6천㎡는 각부락공동으로 경작하고있으며, 1인당 1백36㎡씩 분할배당하여 마늘등 채소류를 재배하고있다。 또 돼지와토끼도 많이 사육하고 있어 여기서 나오는 수익도 대단해서 연간 매출액이 5~6억원 정도다。

환자들은 자율적으로「녹산협동조합」을 조직운영하여 자립기금의 조성과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이조합에 축산부와 소비부를두고 돼지 토끼등의 축산물방출, 생활필수품등의 공동구매를 하고있다。

여기서 나온 이익금은 부자유환자의 용돈으로 얼마간 주어지고 조합원의배당으로 나누고있다。

나병이란

나병은 제3종 법정전염병으로 일종의 만성 피부질환이다。

나병은 불치의 병이 아니다。 일찍 발견하여 잘만 치료하면 나을수 있고 무관심하게 그냥 놔두면 폐인이 되는 특별하지도 않는 병이다。

나병은 天刑의 병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편견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병인 것이다。

나병은 그 원인균인 나균에 의해 전염된다。 나균은 1873년 노르웨이의 의사 한센이 발견한 최초의 병원균이다。 로버트 코호가 결핵균을 발견한것보다 4년 앞선 것이다。 피부과 의사는『나균은 인공배양이 않되기 때문에 실험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나환자의 임상실험만을 통해 추측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 나균은 성장률도 대단히 늦어 다른 박테리아는 몇분이면 2배로 늘어나고 결핵균도 몇시간 걸리는데 나균은 평균20日이상 걸린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나병 환자 수는 아직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못한 실정이다。 불명예스럽게 생각해서, 감추고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때문에 감추고 또「나병환자 가족이다」하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려고 감추고 있기 때문이란다。 실제로 등록되어 치료를 받고있는 환자가 2만7천여명인데 등록되지 않은 환자를 전부 합하면 5만명쯤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다。

외부의 균의 침입에 의한 전염성병으로 표출성 신경을 둔화시키게 되는 나병은 나종양형나(癩腫樣型癩) 결핵양형나(結核樣型癩) 그리고 中間群癩등으로 나병에 대한 저항력의 정도에 따라 나눈다고 한다。 저항력이 약한 나종형나에서는 혈액에서도 균 검출되고 있다고한다。 1cc당 1×10대의균이 있다는 것이다。 우석주 피부과의사는『수혈할때 결핵균 검사는 하면서 나균검사는 하고있지 않는다는것이 아이러니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균은 감염이 거의없는 편이다。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전염은 첫째균, 둘째 인간(면역성) 세째 환경의 조건을 받는데 나병은 균에의한 전염은 거의없다고한다。 사람에따라서 면역성에따라 감염이되고 안되고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은 자연적 저항력을갖고있어 균이 침입했을때 이 균에대하여 적기에 적절한 반응을 일으킬수있는 능력이있는데, 소수의 사람만이 이를갖고있지않아서 발병하게되는것이다。

오늘날 DDS등 다섯가지 주치약으로 화학요법 치료로 나병을 물리칠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나병이 사라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잘살고 잘 먹게되면 나병은 사라지게될 겁니다。 나병은 낫습니다」 이곳에 근무한지 6개월밖에되지않았다는 의사 유석주씨는 나병에대한 연구를위해 일본, 필리핀, 베트남 타일랜드등을 둘러보기도했단다。

신경은 통각, 온각, 촉각등의 지각 그리고 운동을 제어하고, 자율신경은 땀, 분비, 털이자라는 역할, 혈관의 근육운동을 맡고 있는데 나균의 침입으로 신체의 여러부위 특히 얼굴, 팔다리의 외측, 손등, 발등의 피부에 분홍색이나 구리빛 또는 정상피부보다 연한 빛깔을 나타내는 반문이 생기는 일이 많으며 그 부위는 통각, 온각, 촉각등의 지각이 감퇴되거나 소실한다。

또 얼굴이 전체적으로 부석부석하여 지고 눈썹이 빠지기도 하며 눈알이 토끼눈처럼 빨개지기도 한다。

진물이 범벅이 되어 썩고 있는 몽당발,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간 조막손, 합병증으로 토끼눈 처럼 새빨개진 눈, 그나마 눈꺼풀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 눈을 감을수 없거나 시력을 상실한 장님, 이들이 소록도 병원의 진료를 받고 있다。

◇『나병은 낫는다』한정된 구역내에서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들은 재활의 꿈을 키운다。

환자現況

82년 한해동안 백18명이 신입환자로 들어 왔고 2백8명이 퇴원했다。 이중 85명은 나병이 치료되어 음성으로서 전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전국에 있는 백2개 정착촌에 정착하기도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사회에 복귀했다。 그리고 사망자는 백여명으로 사망률은 4%。 사망원인은 대부분 노쇠현상이나 순환계질환등이며 나병으로 인한 사망은 거의 없다。

이를 병형별로는 나종양형나가 74%, 결핵양형나 16%, 중간군나 10%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在院환자의 약90%는 전염가능성이 희박한 음성이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나환자중에는 시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소록도의 경우 실명자가 20%가 훨씬 넘는다。

그러나 맹인 병동에는 그 1/10도 못되는 66명만이 수용되어있고 전에는 24시간 내내 도로 좌우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뻐꾸기 울음소리 시냇물 소리등이 흘러나와 이 스피커 소리로 지형들을 알수 있게 했다는데 지금은 고장인지 한번도 스피커소리를 들을수 없었다。

환자들은 나병 그 자체보다 그로인해 부수적으로생기는 질병로 많았다。 손이없거나 발이없거나 안면의 감각이 없거나 앞을 못보거나 한는 이들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조막손으로도 호미를 손에 묶어서 밭을 일군다。 이들은 현세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내세의 평안을 찾고자 한다지만 이를 멀리서바라보는 기자의 눈은 뜨겁지 않을 수 없었다。 환자지대 중앙에 잘 조성되어져 있는 중앙공원의 구라탑「나병은낫는다」는 글은 오히려 처량하게만 느껴진다。

정사무관의 안내로 고 육영수여사의도움으로 짓게 됐다는 양지회관을 찾았다。 비교적 시설이 양호하다는 이병동에는 약 백80명의 환자가 사용하고 있다。 이곳은 노령자들의 병동으로 사회의 양로원인 셈이다。

마침 식사시간이였다。 대부분 식사를 식당에서 끝냈으나 거동이 불편한 몇몇노인이 부첨인이 가져다준 식사를하고 있는 방을 찾을 수 있었다。

방문을 열자 몸에서 풍기는 환자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늘여다 본 실내는 시멘트 바닥 위에는 군인의 막사처럼 양편으로 마루가 만들어져 있었다。

이곳 환자들은 대부분 노약자 들이다。 평균 연령 이 58歲이고 학력도매우 낮다。 국민학교도 못다닌 자가 50%정도이고 고졸이상은 3%정도 밖에 않된다。 그래서 이들에게 위생교육이잘 되지 않고 있으며 자립할려는 의지가 약하고 국가에서 주는 혜택만 바라보는경우도 있다한다。

소록도 사람들

고흥반도 끝 녹동항에서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에 있는 약 1백50만평의 이 섬은 그 모양이 사슴을 닮았다고 해서 옛날엔「사슴섬」이라고도 불리웠다。 이곳에는 현재 2천5백여명의 환자가 투병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일상생활을 뒷바라지하는 행정직원 2백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환자와 동화하며 仁術을 베풀고 진정한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간직한 휴머니티를 볼수 있었다。

이들은 병마와 싸우는 환자에게는 힘이요 믿음이기도 했다。 세상사람 모두가 마다하는 이들을 환자들을 돌보며 이곳을 고향으로 여기며 한평생을 도우는 사람이 되고자하는 外國人도 있었다。

숭고한 봉사정신과 박애정신으로 지난 62년부터 간호원으로 봉사해온 마리안느수녀, 그리고 마가렛수녀, 그외에도 카드릭, 존, 그리고 한국말을 유창하게하며 녹색승용차를 타고다니는 체구큰 바바라양등 모두 8명이 외국봉사단체에서 파견되어 숭고한 정신을쏟고 있다。

미국적의 캐氏는 환자들의 발에맞고 편한 구두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 구두 만드는 기술을 연구하기위해 스스로 인도에까지 가서 연구하고 돌아오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과 사랑은 환자들의 순박하고 착함과 더불어 아름다운 소록도를 건설해 가고 있는것 같았다。

수간호원 김선희는「이들 간호원은거의 봉사 지원으로 나와있어요。 다른사람들이 볼때는 나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어렵고 여기서 일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인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일반 환자와 다를게 없어요」라면서「간호일부에 어려운 점이 별로 없다」고 담담하게 말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가족친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곳에 와서 봉사정신으로 손가락이 없는 환자의 팔에 알콜을 묻지르며 바늘을 꽂는것은 결코 평범하게 보이질않았다。

「무슨 사상이 남달이 있어서도 아니고 공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한사람의 의사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는것 뿐입니다」이렇게 말하는 한의사의 이야기를 듣고「나병원이라고 하니까 신문·잡지·텔레비전등 매스컴에서 무슨 특별 취재거리나 되는 것처럼생각하는지 요즘들어 많이 떠들어대는것 같은데 우리는 특별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응변하는 간호원의 얼굴을쳐다보기에는 웬지 세상사람들이 더 별난사람같다는 생각이 앞섰다。

結

나환자의 수용보호와 복지증진, 진료및 지도, 음성치유자의 自活定着을 위한 직업輔導와 나병에 관한 연구조사등 광범위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국립 소록도병원의 궁극적인 이상은 점진적으로 나병을 완전 퇴치하게 되어 병원문을 닫는것이다。

이조 실록 세종대왕편을 보면「제주도에 나환자가 많아 이들을 격리 수용하여 의생으로 하여금 치료케하고, 승들에게 간호를 시켰다」는 기록이있다。

문종대왕편에도 제주관리 기건에 관한 기록이 있다。「부모 처자라 하더라도 전염을 두려워 하여 나환자들을 사람이 없는 바닷가에 버렸다。 기건은 그들이 슬피우는 소리를 듣고 그 사연을 듣은후 苦參元이라는 약을 먹이고 소금물로 씻겨서 백여명의 환자중 대다수를 낫게 했다」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의 나병퇴치를 위해 애쓴 이런 기록은 소록도병원에 보관돼 있다。

우리나라도 나병의 발병률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언제쯤 근절될 지는 아무도 단정 할 수 없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나병은 낫는다는 환자들의 확신과 충분한 치료시설과 약품, 그리고 이에대한 일반의 인식이뒤따라 준다면 그만큼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소록도 병원은 나병퇴치를 위한 몇가지 문제가 있으나 선결문제는 낡은 치료본관을 비롯한 노후화된 치료시설이다。 그리고 의료진의 부족이다。 의료법상으로는 소록도 병원의 의사 소요인원은 63명인데 현재 6명이 일하고 있으니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이다。

중환자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부첨인은 갈수록 인력확보에 문제가 많고 현재 도움을 요하는 환자들이 부첨인 일부를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치료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점차 부첨인을 간호보조원으로 대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병은 별난 병이아닙니다。 소록도 또한 별난 데가 아니고 여기서 일하는 것도 평범한 일이다」라고 일반인이 인식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하겠다。

「뭍으로 나와 섞여사는 것」은 이곳 환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입원실의 한 환자가 말한다。

그것은 나환자가 되기 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처럼버스를 타고, 옛날처럼 친구와 만나 정담을 나누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먹고 놀고 잠자는 생활이 그들은 너무나그리운 것이다。

天刑섬에는／納骨塔이 確答／끝내
나병은 낫는다는 神話가／우악한 산하
에는 불어오는가／모질게 살아온 목숨들이／
이제 뭍으로 신천지를 찾는／찬란한 슬픔의
小鹿島／아으 오십년／해방·자유가 있는／
아 새세상。

大学生강좌
T O E F L 종합英語 VOCABU 英文해석 韓美合同 AFKN TV DRAMA, NEWS 美人회화 영어회화 일본어初高 英語실력기초
종로 YMCA 건너편 종로코아입구 744-6000 744-6060
충무로 입구 중앙우체국옆 (대연각후문앞) 777-6969 777-6989
고려 KOREA 외국어학원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
NIKE
●조깅화 ●평상화 ●축구화 ●테니스화 ●레저화 ●야구화 ●육상화 ●하이킹슈즈 ●농구화레전드 ●싸이클화
약수동나이키판매장
☎252-5998
한남동 Tower-H 장충체육관 동국대학교 금호대교 신당동 서울운동장 앰버서더-H

軍지원행정병 모집
자격: 16~26세 고졸이상(해군중졸) 복학조절가함
특전: 교육수료후 희망시기입대。(교련혜택받음)
※ 각 군참모총장위촉기관
차드 펜글씨
서예 도안
관인 인성서예차드학원
▲각과 초보자환영 기초부터 개인지도식으로 지도함
▲수료후 취업희망자 추천함
▲각군기술행정병위촉기관 종로1가버스정류장 무과수제과 2층
725·3771 722·5346

코파카바나
코파카바나! 젊음이 숨 쉬는곳.
낯모르는 사람끼리 対話의 문을 여는곳.
젊음끼리 통하는 고독하지 않은곳…
그래서 좋은곳, 코파카바나!
개업 3주년기념 특별 할인 봉사
서린호텔 공안과 화신 삼원 월드컵 코파카바나
☎777-2498

대学生·成人을 위한 英語 Training Center
현대외국어학원
時事英語社 直営
현대외국어학원
—英語·日語—
◉TIME, Digest, TOEFL綜合, TOEFL L.C. AFKN청취, Word Power, Vocabulary, 英作文 이재옥TOEFL, 성문綜合英語, 英文読解 현대영어, 三位一体, 日本語初級, 中級, 高級
◉美人会話 —— (New English Course英語会話)
◉韓人会話 —— (Welcome to English 英語会話)
3月2日 개강
수시등록
☎(269) 6626~7
YMCA 파고다공원 ←화신앞 종로2가네거리 종로3가→ 전산외고속 현대외국어학원
현대외국어학원은 時事英語社 直営입니다

大學英語
教養, 留学, 就職, 大学院試験準備
開講⇨ 3月2日
(선착순등록마감)
李在玉TOEFL
아카데미TOEFL
Vocabulary22,000
TIME 英文속독法
TOEFL LC, AFKN
英文解釈①②③, 英作文
Word power, 美人会話
TOEFL 留学英語, 基本英語
한·미合同会話, 三位一体
민병철生活英語, English900
英語実力基礎, 성문綜合英語,
美国語Hearing 碩博英語
Vocabulary12,000, 基礎 英作文
Reading Power, GRE, GMAT
Word power 基礎英語会話
初級日語, 中級日語
高級日語, 日語読解
ダイジェスト, 日語高級会話
独語文法宗成
英·日·独
院長: 文昌淳
종로2가 종각뒤편 724-2442·722-9226
時事英語學院

이번에 실린 論文은 第82學年度 博士學位 受位者 論文中에서 한편을 고른「老子의 道와 德에 관한 연구」란 것을 알려 드립니다. 【편집자註】

老子의 道와 德에 관한研究

金恒培 〈문과대 교수·철학과〉

(1)緖言

老子의 道는 多樣한 意味內容을 含蓄하고 있다. 즉 形而上學的인 窮極的 存在로서의 意味가 있는가 하면, 原理的인 統一者로서의 意味도 있다. 또한 모든 事物의 現顯을 可能케 하는 原動力者로서의 意味도 있다. 老子의「德」도 또한 그렇게 간단히 理解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老子의 德은 단지 人倫的인 倫理規範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道의 本質的 屬性및 그 作用을 意味한다. 따라서 老子에 있어서 道와 德은 宇宙와 人生을 說明하기 爲한 窮極的인 文字이다. 그런데 老子에 따르면, 道는 本是 말할수 없는것이요, 言語나 文字에 依해서 制約될수 없는것이라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言語나 文字를 매개로 하여 老子의 道와 德을 이해하려는데 그難點이 있는것이며, 또한 여기에 老子哲學의 역설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老子의 道와 德이 지닌 의미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지 道德經에 쓰여진 文字들을 단도직적으로 좇아가서는 안될것이요, 그 全體的 脈絡속에서 말하고자하는 의도를 발견해 내는것이 要求된다. 이런것을 염두에 두면서 道德經의 맥락을 살펴보면, 一見해서 모순되는듯이 보여지는 도의 제반의미들이 실은 내적인 통일과 조화를 이루고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면 궁극적 존재로서의 道를 老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기로한다.

(2)근원적존재로서의 道

老子는 道를 어떤 他者에 의해서 創造되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를『天地가 생겨나기 보다 앞선 混成의 物이 있는데, 고요하고 그윽하며, 홀로서서(獨立) 변화되지 않으나, 두루 運行하되 게으름이 없으니, 可히 天下의 어미가 될만하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이름할수 없어서 그저 道라고 말한다』고 說破했다. 즉, 道는「獨立而不改」한 것이라고 했으니, 이는 自存하며 自立하는 것임을 알수있다. 그러나 다른것에 의해서 변화되지는 않을지언정 靜止되어 있거나, 固定되어 있는것이 아니요 스스로의 큰 活動能力을 지닌것이므로「周行而不殆」라고 한것이다.

그런데 이道의 활동의 결과로 모든 사물이 나타나게되므로 가히 천하의 어미가 될수있다고 한것이다. 이렇게볼때, 老子의 道는, 단지 형이상학적인 체계를 세우기위한 근본개념(예컨대 Spinoza의 실체와 같은)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그무엇」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그러므로 道德經의 注釋家인 蘇子由도 말하기를「道는 심연하게 상존하는바 天地도 그 속에서 生하는것」이라고 했다. 道의 이와같은 존재성을 좀더 풀어서 설명한것이 도덕경 21章의 문장이다. 즉『道의 됨됨(道之爲物)이는 다만 恍惚한데, 황홀한가운데 象이있고, 物이있으며, 고요하고 그윽한 가운데 정이있는데 그精이 심히 진실하여 그가운데 法則性(信)이 있다』고 한다.

즉 道는 어떤 名家나 현상에 의해서 제약되는것이 아니지만, 황홀한 그속에 象과 物, 그리고 精과 信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황홀한 것과 象상및 精과 信은 어떤 관계에 있는것인가 하는것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황홀하다는 표현은「有와 無」의 범주로서 파악할수 없음을 뜻한는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황홀한 가운데 物象이 있다고하는것은, 황홀한것과 物象을 둘로 나누어 본것이 아니다. 오히려 황홀한 道 그대로가 物·象및 精·信으로 나타날수 있음을 뜻하는것이라고 볼수 있다. 「道」의 이런 특성이 理性의 형식적 원리에 의해서 정립된 實體觀念 또는 범주와 구별 되는것이며 이는 老子의 道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老子는 道가 感覺이나 悟性에 의해서 인식될수 없는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보려고 하나 보이지 않으니「夷」라 이름하고, 들으려하나 들리지 않으니「希」라 이름하며, 잡으려 하나 얻어 가질 수 없으니「微」라 이름한다. 이렇게 볼수 없고 들을수 없으며 잡을수 없는 것은 言語로 詰難해서(즉 논리적 推論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까닭에 섞여서 하나가 된다.(故混而爲一)그 위도 밝지 않고, 그 아래도 어둡지 않으나, 아주 단절된 것은 아니며, 無物에 復歸한다. 이것을「無狀之狀」이라하고「無物之象」이라하며,「恍惚」이라고도 한다』

즉, 앞서 恍惚한 가운데 物象이있다고 한것은 바로「無狀之狀」과「無物之象」을 뜻하는 것임을 알수 있다. 또한「섞여서 하나가 된다」(混而爲一)고 한것은 다름아니라, 無狀과 無物과 象이 하나임을 指示하는것 밖에 다른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래도록「形象없는것」과「形象지닌것」은 다른 次元의 것인양 생각하는, 思惟方法에 익숙해 왔다. 그런데,「道」에 있어서는 이것이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다른말로하면, 우리의 感覺이나 悟性的인식으로는對立되고 矛盾된다고 생각되고 믿어지는 모든것들이 實相은 對立되고 矛盾되는것이 아닌 하나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言語나 文學에 의해서 認定할수 없는 眞實한 存在郡「道」라는것이다.

(3)道와萬物의關係

앞서 본바와 같이 道는 文字나形象에 限定된것은 아니지만, 形象으로 나타날수도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無形象的, 또는 無名擧的 道와 育形象的이며 名字를 지닌 萬物과의 關係는 어떤것일까 하는것이 뒤따른 問題가 될것이다.

이에 對해서, 간략하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것이 道德經의 다음 句節이다. 즉,『말하여 질수있는 道는 常道가 아니요, 이름 붙여질수있는 이름은 常名이 아니다. 이름 할수없는것이 天地의 비롯이요, 이름할수 있는것이 萬物의 어미(母)이다. 고로 언제나 無欲으로써 그「妙」를 본며, 有欲으로써 그「徼」를 본다. 이 兩者는 같은데서 나온 이름만 다른것인데 다함께「玄」하다고 말한다. 玄하고 또 玄한것이 모든 妙한것의 門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해질수 없는것과 말해질수 있는것의 關係는 다름아닌 道와 萬物의 關係이다. 이름붙일수없는 萬物은 있지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름할수 있는 것이 萬物의 어머니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萬物의 差別을 안다고하는 것은 實은 萬物 各名의 實體를 안다는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萬物에 대한 이름에 依해서 分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萬物의 差別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萬物 그 自體가 本質的 差別에 依한것이 아니요 人間의 主觀的 思維形式에 의해서 分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萬物의 差別의 인하는 우리의 의식주관 즉 말할수 있는것(有名)이 萬物의 어미라고 한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 말하여질수 없는것 즉 근원적 存在인 道와, 言語에 依해서 이미 分別되어진 萬物이, 本質的으로 다른것인지 아닌지도, 萬物 그自體가 무엇인지가 明確히 解明되기 전에는 우리가 알수없는것이다. 그러므로 老子는 이 兩者의 明確한 區分을 前提로 한는데서 出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兩者는 같은것의 다른 이름에 不過하다고 본것이요, 다함께「玄妙」한 것이라고 본것이다. 언듯 생각하면, 근원적 存在는 玄妙한 것이요, 分別되어진 萬物은 이미 明確한 區分이 이루어진것(吝徼)이라고 믿어진다.

그러나 實은 萬物의 差別象은 우리의 감각이나 印象 또는 言語槪念에 의한것이요, 萬物 그自體의 本質的 차별에 따른것이 아니므로 言語나 槪念에의한 分別이 가해지기 전의 순수한 萬物 그自體는 감각이나 悟性의 形式에 限定되는것이 아니므로 萬物도 또한 근원적인 의미에서는 玄妙한 것이다. 이처럼 근원적인 존재가 玄妙한것일 뿐만 아니라 萬物도 또한 玄妙한 것이므로「玄之又玄」이라고·한것이며 근원적인 존재와 萬物이 하나로 融合되는 진리즉 道에서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를「衆妙之門」이라고 한것이다. 또한 항상 無欲으로써「妙」를본다고 한는것은 無欲이라야 能히 主客이 分裂되기 이전의 순수 존재를 깨달을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수있다.

虛와 靜,「道」가 지닌 가장중요한 功德

그러면「欲」이란 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欲」이란 글자를 보면 계곡이 빈듯한 상태를 형용한것이다. 즉 무엇인가 결핍된 상태이며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상태를 형용한 글자이다. 따라서 밖으로부터 무엇을 얻어 가짐으로써 스스로를 충족시키고져 하는 다함없는 인간의 갈망이라고 볼수있다. 그런데 이런상태에서는 언제나 분별과 대립 밖에는 볼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無欲이라야「妙」즉 분별되어지기 전의 순수존재를 볼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볼때, 분별되어진것과 분별 되어지지않은것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다만 無欲과 有欲의 차이가 있을뿐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無欲」이란 이미 主客이 分裂되지 않은 狀態이므로, 보는者와 보여지는 者가 둘이 아니다. 따라서「無欲」으로써「妙」를 본다는것은, 곧 人間의 意識이 순수存在에 還元될을 뜻한다고 볼수있다.

虛의 극치에 이르고 靜을 독신하게 지키면 萬物이 더불어 지어진다. <사진은 종묘 祭禮중에서>

老子의「道」는 감각, 悟性에의해 인식되지 않아

宇宙自然의 관찰통해 人間삶 再照明

이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순수존재에 還元 될때에만, 道와 萬物이 融合될을 알수 있고, 모든 事物의 本是 對立 되거나 矛盾되지 아니함을 알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서 萬物의 差別象을 인정하게 되며, 그들의 對立과 갈등을 實感하게 되는가? 이것이 다름아닌 道와 生成의 問題이다.

(4)道와 生成

生成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하나의 實體가 또다른 實體를 産出하여 낸다고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실사 무엇이 生産 되었다고 할때, 생산의 참된 의미를 이해 하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그런데 道德語에서는 萬物生成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간단이 설명하고 있다. 즉,『道는 하나를 生하고, 하나는 둘을 生하며, 둘은 셋을 生한다. 그런데 셋은 萬物을 生하며, 만물은 陰을 업고 陽을 안으며 神氣로써 和를 삼는다.』

이 文章을 反象的으로 보면, 窮極的 存在인「一者」로 부터 만물이 生成되는 순서를 설명한는것 처럼 보여질수도 있다. 그러나, 道德經의 전체적 脈絡을 볼때, 道와 萬物을 別體로 볼수는 없다.

그렇다면, 道가 하나를 生하였다고 하는것은 무슨 뜻인가? 앞서 본바와같이 道를 道라고, 말할수 있으면 이미 그것은 항상된 道가 아니다. 따라서 道가 하나를 生하였다고 하는것은, 道가 실제로 하나를 産出하였다는것이 아니다. 오히려「하나」라고 規定하는것을 意味하는것을 의미한다. 이미「하나」라는것이 設定되지마자,「하나」와「하나」아닌것의 區分이 발생한다. 그러므로「하나」가 둘을 生하였다고 한것이다.

또한 이미「하나」와「하나」아닌것의 구분이 인식된 다음에는 양자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둘이 셋을 生한다고한것이다. 人間의 의식이 이와같이 분열된 다음에는 만물의 차별상을 인정하게된다. 그러므로「三生萬物」이라고 한것이다. 그렇다면 陰氣와 陽氣및 神氣를 말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것이 다음의 문제이다. 앞서 道가 하나를 生하고, 셋이 萬物을 生한다고 한는것은 인간의식의 분열과정을 압축해서 설명한것이라고 한다면, 陰氣와 陽氣및神氣에 관한 설명은 곧萬物發生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고볼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식의 분열과정과 만물발생의 과정을 동시에말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앞서본바와 같이 도는 천지가 生한것보다 앞선「混成의物」이다.

그런데 여기서「物」이라 함은「心」에 相對的인 意味에서의「物」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物」은 인간의 모든 意識現象과 物理現象을 포괄하는 의미에서의「物」이라고 볼수 밖에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道와 萬物生成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 되어야만 할것인가? 老子의 道는 인간의 모든 의식적 分別活動과 陰氣, 陽氣및 冲氣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봄으로써만, 道에 의한 萬物生成의 의미를 우리는 어느정도 알수가 있다. 그렇다면 道의 活動은 어떠한 법칙성에도 제약되지 않는것인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법칙적인 활동을 하는것인가 하는것이 다음에 제기 되어야만 할 問題이다.

道德編에서는 말하기를『反者 道之動弱者 道之用』이라고 한다. 여기서「反」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수있다. 즉「反」이란 되 돌아옴(返)의 뜻이라고 보는 見解가 一般的으로 通用되고 있기는 하지만, 혹자는「反」을 글자 그대로「相反」의 뜻으로 보기도 하며, 또는 相反하면서 相成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現象的 事物을보면 相反하는 一面도있고, 또 相補하는 一面도 있음이 事實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相反하는 一面과 相補하는 一面이 同時에 存在하게 되는것인가? 만약, 모든 事物은 相反할수밖에 없는것이라면, 相補하는 현상은 있을수 없어야되며, 그 反對로 相補할수밖에 없는것이라면相反하는 現象을 없어야만 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가지 모순되는 현상이 동시에 우리에게 知覺된다는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실상은, 상반하기만 한는것도아니고, 相補하기만 한는것도 아니요, 단지人間의 분별의식이 차별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인식하고있음에 불과하다고볼수도 있는것이다. 도덕관의 맥락에서 해서 본다면, 오직 존재하는것은 도의 자기전개와 복귀일뿐, 그밖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萬物竝各復歸其根」이라고 한다. 즉 萬物이 각각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모두 그 뿌리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그러면 뿌리로 돌아간다는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결국 道에 복귀된다는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千差萬別의 모든 현상들이 모두 道의활동에 말미암은 것이요, 마침내, 道에로 복귀된다는것이다. 그러면 道는 도대체 어떤 속성을 지녔을까 한는 것이 다음의 문제이다. 이것이 다름아닌「德」의 문제이다.

(5)老子의 德

老子는 말하기를『하늘은 하나를얻어서 맑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平安하며, 神도 하나를 얻어서 神靈하고, 골짜기도 하나를 얻어서 차며(盈) 萬物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生하고 候王도 하나를 얻음으로써 天下가 바르게 되는데, 그 도달하는것은 하나이다』고한다. 즉, 하늘과 땅, 神과 萬物및 人間이 각각 그를 다룰수 있는것은 이「하나」를 얻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하나」라고 한것은 곧 道를 의미 한다고 볼수있다. 따라서 道가없으면 天·地·人및 萬物도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얻는다」고 한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에대하여 呂吉甫는 말하기를,「道는 하나로서 다하는 것인데, 얻는다고 하면, 얻는것과 道가 둘이되어 하나가 아니다. 다만 얻되, 얻음이 없음으로 하나를 얻는다고 말한다」고 한다. 즉呂吉甫가 말하려는 것은, 道와 天·地·人및 만물이 서로 다른 실체를 지닌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天·地·人및 만물이 각각 그를 다룰수 있는 것은, 道의 속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보다 道에 포섭되는 것이라고 볼수 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도달하는 곳은 하나(其致之一也)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볼때, 老子에 있어서 덕이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天·地·人및 만물이 道의 속성을 갈무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老子는 말하기를「道는 生하고 德은 畜한다」고 한다. 그러면 道의 본질적 속성은 어떤 것일까 한는것이 다음의 문제이다. 앞서 본바와 같이 道는 반복순환의 활동을 하는데, 그 작용에는 무리가 없고, 억지로 힘 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反者道之動 弱者道之用」이라고 한다.

즉,「弱」을 道의 作用이라고 본것이다. 그러면 왜 强한 動力을 道의 本質的 속성으로 보지 않고 弱한것을 道의 作用이라고 보았을까하는 의문이있다. 그러나 여기서「弱」이라고 말하는 것은 强의 反對槪念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道의 本質的 유연성을「弱」이란는 文字로 表現한 것이다. 道는 어떤 하나의 事物에 局限된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道는 天地人 萬物로써 나타날수가 있다. 어떤것으로도 될수 있지만 그 스스로는 아무런 形象도 지니지 않는다. 이러한 道의 성질을 老子는 柔弱이라는 말로 表現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柔弱은 道의 本質的 속성의 하나이며, 이를 다른말로 하면 道의 德性이다. 또한 老子는 虛와 靜을 道가 지닌 매우 중요한 功德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를,『虛의극치에이르고, 靜을 독실하게지키면 萬物이 더불어 지어진다』고 한다. 그는 또 말하기를『서른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의지해있는데 그빈곳에 수레의 쓰임이있다. 진흙으로그릇을 만들면 그 빈곳에 그릇의쓰임이있다. 벽을 뚫어서 창문을 만들면 그 빈곳에 방의 쓰임이있다. 그러므로 있는것으로 이익을 삼고 없는것으로서 쓰임을 삼는다』고한다. 즉, 구체적현상을 지닌것보다는 그形象이 자리할수있는 근거가 되는것을 보다 근원적인것이라고 본것이며, 바로 거기에 道의 작용이있다고 본것이다. 그러나 老子가 통찰한「虛」는 단지 아무런 의미도없는「空虛」또는 단순한「空間」의 의미로만 본것이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를『天地之間은 마치 풀무와 같다. 움직일 수록 더욱 나온다』고 한다. 이를 현대적인 안목에서 보면, 天地之間에는「氣」가 가득차 있어서 이 氣를 풀무처럼 뿜어낼때 모든 現象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뜻으로도 볼수있다.

그러면 老子는 왜「有나實」보다는「無나虛」를 보다 본질적인 道의속성으로 보았을까? 모든 形象을 지닌 事物들은 그러한 形象을 可能하게 해주는 本質이나 原理를 지니며 또 그것에 制約 되지만, 道는 道를 道이게 해주는 또다른 本質을 自己속에 갖고 있지 않으며, 이것이 道의 중요한 본성이므로, 이를「虛」라는 말로써 표현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이때의 虛는 단순한 空虛가 아니며 限定할수 없는 氣로 가득차 있는 虛이므로 虛의 극치에이르면 萬物을 짓는다고 할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虛는 죽어있는것이아니요 살아 있는 虛이다. 그러므로「谷神不死」라고 한는것이다.

老子는 또한 싸움없는것이 道의중요한 속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물(水)은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흐르며, 막는것이 있다면 막히고, 열린곳이 있으면 흐르면서 모든것을 이롭게 하지만 아무것과도 싸우지 않는것처럼 道도 또한 아무것과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다. 道가 이처럼 싸움없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道와더불어 싸울수 없다는 것이다.

老子는 또한 素樸의 德을 强調한다. 왜냐하면 꾸며지지 않은 그대로의 人間의 본바탕 마음과 自然의實相 그대로가 곧 온전한 것이고 充足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人間에게 必要한 일은 自然그대로의 본바탕 자리를 깨달아서, 淳朴하게 사는것이요, 상대적이며 對立的인 意識의 次元에서 工巧로운 人爲的 文物制度를 마련해 보아도, 그것으로는 人間을 平安하게 할수 없고, 마침내 끝임없는 對立과 鬪爭에서 벗어날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見素抱樸 少私寡欲』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自然의 實相을 똑바로 깨달은 삶이 곧 道德的삶

(6)結語

老子의 道와 德에 關한思想은 一見해서 人間의 現實的 生活과는 無關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쉽다. 왜냐하면 主로 자연의 운명과 그 實相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儒家學派의 사람들로부터 자주 비난을 받아온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道德經의 전체적 맥락을 깊이 살펴보면, 거기에는 바람직한 인간의 삶, 또는 참된 平和의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관심이 內在해있다. 그러므로 道德經의 各章에서는 먼저 자연의 大道를 말하지만 결국부분에는 반드시 인간이 取해야만 할 바람직한 삶의 姿勢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즉 宇宙自然에대한 洞察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다시 照明하여 보려는 方向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人間은 自己中心的인 편견이나 독단으로부터 벗어날수 있고 또 그러한 편견에따른 편협한 삶의 태도로 부터 自由로울수 있다고 老子는 본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老子에게 있어서는 自然의實相과 人間의 道德的 삶 사이의 아무런 모순이 있을수 없었다. 왜냐하면 自然의 實相을 똑바로 깨달은삶이 곧 道德的삶이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老子가 본自然은 人間까지를 포함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므로, 인간이 가장 자연스러울때가 곧 가장 인간적인때라고 본것이다.

바로여기에 자기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오히려 自己다워질수 있다는 道說이있을수 있게 되는것이다.

自然과 人間, 人間과自然의 온전한 융합의 길을 제시한 老子의 사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여 주는바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都市開発計劃의 종합적 접근을 시도한 한원택 교수의 力著가 드디어 출간되었읍니다

都市開發論

부제 : 新都市開発의 展開過程

成均舘大教授 行政学博士 한 원 택 著

産業化·都市化로 연결되는 현대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도시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그중에서도 보다 바람직한 주거환경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등의 효과를 겨냥하는 新都市開発의 시도는 未来 指向的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하겠다.

인류가 꿈꾸어 온 理想郷에 대한 여러 思想들을 더듬어 외국 국가들에서 그 실천사례를 자세히 살펴본 저자는 그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대입시키고 있다. 半月新工業都市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것이었는가? 果川行政都市는 어떻게 구상·설계되어야 할 것인가?

21세기를 향한 미래도시에 대해 탁월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저자가 수년동안 심혈을 기울인 필생의 역저이다.

대형국판 양장본 정가 8,000원

대학문화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7 동북빌딩 1005호 ☎782-3681(직통) 783-1541/5(교환)

"도대체 무슨 겉꾸밈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1983,새 술은 새 부대에——

알몸

「作法」同人 첫번째 작품집

李然喆·「代役」「흐르는 魂」/류재주·「白色日」「사냥일기」/이유범·「알몸」/고원정·「날개짓기」

요즘의 소설 너무 재미없다고들 야단입니다

매너리즘의 늪속에 깊이 가라앉아 따분한 신세타령이나 하고 있거나, 아니면 속은 온통 텅비어 있으면서 간신히 허장성세의 修辞만으로 그럭저럭 넘긴다는 겁니다. 신선한 피톨들이 뛰노는 생생한 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허위를 허위인 그대로 보아내는 겁없는 눈빛이 죽었으며, 분노를 분노로 토해내는 우렁찬 獅子吼를 들을 수가 없읍니다. 웬 가식들이 그리도 많습니까? 우리의 몸뚱아리는 그런 허위와 겉꾸밈의 땟물로하여 늘 찌뿌드하고 못 견딜만큼 군시렁거리고 있읍니다.

새로운 목소리의 탄생——「알몸」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 씩씩하고 젊은 목소리들이 모였읍니다. 아직도 대학물이 뚝뚝 듣는 이 겁모르는 친구들은 두 눈 똑바로 뜨고 허위에 찬 이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탄없는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를 군시렁거리게 하는 모든 허울을 훨훨 벗어버리고 난 뒤의 시원통쾌함이 여기 있읍니다. 앞뒤눈치모르는 목소리는 이처럼 시원한 것을! 짓눌렸던 가슴이 뚫리는 시원한 바람이 지금 불기 시작했읍니다.

시원통쾌한 바람이 불고 있읍니다

●젊고 신선한 책. 지금 서점에 있읍니다. 대형국판 336페이지 값3,400원

도서출판 多讀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7 동북빌딩 1005호 ☎782-3681(직) 783-1541/5

오직 젊음만을 밑천삼아 맨주먹으로 세계經濟界에 뛰어든 사나이들의 파란만장한 스토리
mbc라디오 人氣논픽션

綜合商社

1. 現代그룹편 할리스熱風

한유림 지음 값3,000원

■〈現代〉라는 産業軍團을 이끌어가는 정주영 회장의 경영비결, 그의 人間性과 씨름꾼같은 뚝심과 뱃심은 무엇인가?
■10억불규모의 주베일 산업항공사 입찰을 둘러싼 국제적인 음모와 술수에 대항하는 우리 수출 역군들의 機知와 勇氣.
■아랍文化의 특수성을고려한 중동지역의 세일즈 비법.
■중동건설기능공들의 現地生活실태

《綜合商社》시리즈 出刊안내
007시리즈물 무색케 할 대형 종합상사 세일즈맨들의 종횡무진한 활약상울 담아 계속 출간할 예정입니다.

體驗으로 엮은 수출실무의 바이블
당신도 수출왕이 될수있다
읽은 사람은 모두 미리부터 이책을 읽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읍니다.

(주) 애드영출판부 782-3681
대학문화사 783-1541/5

陸軍士官學校의 모든것

오! 화랑대

陸軍士官學校!
소란과 충격의 歷史와 함께 살아온 화랑대—육군사관학교의 숨은 얘기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禁女의집, 質問禁止의 聖域에서 펼치는 사나이들의 장쾌한 드라마!

● 陸士란 도대체 어떤 곳인가?
● 陸士人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인가?
● 陸士人이 될수있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30여년 동안 陸士에서 외길을 걸어온 著者가 육사의 모든것을 우리앞에 펼쳐보인다.

陸士教授部長 李東熙 著

3,600원

대학문화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7 동북빌딩 1006호 ☎783-1541~5

매스컴 4理論

F.S.시버트, T.A.피터슨, W.슈람 共著
李圭種, 韓炳九 共譯

매스컴理論의 古典

세계 言論의 기능을 조종하는 여러이론들의 상충적인 측면들을 요약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大学에서는 매스컴과 관계되는 学間의 연구가 날로 성하고 있읍니다. 그만큼 매스컴이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학문이거나 그 분야의 바이블로 여겨지는 책들이 있듯이, 매스컴의 分野에서도 바이블쯤 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매스컴 4理論입니다.

권위주의이론, 자유주의이론, 社会的責任理論, 소비에트 共産主義理論

매스컴의 어제, 오늘, 내일이 이 한권에!

값 4,600원/전국 유명서점에 있읍니다
本社로 주문時에는 소액환을 이용해 주십시오

대학문화사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537 동북빌딩1006호/☎783-1541~5

맨발로 뛴 11년동안의 수출실무경험을 총망라한「수출실무의 바이블」!!

張永昊 著

당신도 수출왕이 될수있다

■주요내용■
●수출은 왜 직접 一線에서 뛰어야 하나 ●수출 이전에 이런 사항을 갖추어라 ●수출 시장조사는 어떻게 하나●숨은「바이어」는 이렇게 찾아라 ●카탈로그는 이렇게 만들어라 ●대만의 대대적인 광고전술 ●「바이어」는 이런 편지를 좋아한다 ●해외「세일즈」여행은 이렇게 하라 ●한국의 수출전시는 개선할 점이 있다 ●한국이 대만·홍콩에 뒤진 상품들 ●힛트품목은 벼락부자의 길 ●국제가격경쟁은 어떻게 이기나 ●연불수출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지불거절에는 이렇게 대처하라 ●가짜「클레임」을 조심하라 ●눈치영어와 손짓영어는 위험하다 ●商談은 이렇게 하라 ●일부 현지법인은 국제경제를 망치고 있다 ●「스토크세일」은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 ●중소 수출기업을 성장시키는 사과나무 이론.

국판/300페이지/값3,000원

대학문화사 여의도동 1-537 ☎783-1541~5

첫卒業生 배출한 慶州大의 現位置

예산의 効律的活用등 難題많아

종합대학性格정립 先行, 편제등 검토돼야

社會에봉사, 研究하는 大學으로 기반구축

佛敎精神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東國大學校가 민족문화의 발상지인 신라천년의 고도 慶州에 그 분신인 慶州大學을 설립한지도 어언 4年이 지난지금 첫 결실이라 할 수 있는 졸업생을 오는23日 배출하게 되었다. 無에서 有를 창조해야만 하는 개척의 역사그대로 였던 慶州大學으로서는 실로 뜻깊은 일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첫 졸업생 배출을맞아 慶州大學의 성과및 건설상황 학생활동 등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의 업적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문교부가 수도권 인구분산과 교육기회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내 각 대학에 지방분교 설치를 권장했을때대부분의 대학은 수도권에 인접한 용인, 안성, 반월 등지에 分校를 설치하여사실상 분교설치 목적과는 달리 서울에 인접하여 학생수의 量的 증가만을 가져오는 교육체증을 일으켰다. 그러나本校는 전문 연구진의 오랜 검토 끝에 佛敎精神의 사상적 맥락을 같이할 수 있고 부처님의 자애와 度世의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새로운 불교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慶州에 분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서울근교의 他分校와는달리 거리상에서 빚어지는 온갖 어려움을 투철한 사명감과 정신적 의지로이겨내고 산과 논, 구릉으로 뒤덮혔던18만평의 서당을 보금자리에 이젠 용맹정진하는 東國의 자태가 우뚝 솟아있다.

本校가 慶州大學을 설립함으로서 얻은 결실은 무엇보다도 校勢의 質·量的팽창이라 볼수있다. 5千여 慶州東國人은 77年 역사에 빛나는 전통을 재정립하면서 또다른 창의적 전통을 확립하고자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교세는 급격한 향상을 가져올수 있었고 開校의 역사에 비해 정체상태에있는 東國에 웅비의 의지를 불러 일으킬수 있었다.

또한 교육기회확대의 기능은 중앙과 지방의 실한 교육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른大學의 分校는 서울거주 학생들을 흡수하여 단지 교육장소만 근교로 옮겼을 뿐 교육기회 확대라는 본래의 구실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나 慶州大學은 영남지역의 많은 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는데 올해 慶州大學 신입생모집에서 90여 고등학교의 학생이 합격하였으며 10명이상의 합격자를 낸 학교도 30여개교가 된다는 점을 볼때 지역사회에서 慶州大學이 차지하는비중을 짐작할 수 있고 大學설립사상 획기적인 일로 평가 받을만 하다.

다음은 慶州大學이 慶州를 단순한관광도시에서 학문·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 시켰다는 점이다. 신라천년의 고도라는 상표(?)에만 의지한채 침체되어 왔던 경주에 진정한 佛敎精神을 연구·실천할수 있는 실천도장으로서의 기능은 종합학교인 本校가 慶州에 分校를 설치하여 얻은 가장 큰 성과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慶州東國人은 佛敎의 精神文化를 현실에 맞게 청정 전파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하는 또하나의 사명감을 잊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이렇듯 慶州大學은 가장 모범적 分校로 성장발전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연구하는 대학으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慶州大學이 이와같은 기능을 수행하기까지는 많은 혈극의 길을 걸어왔다.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캠퍼스에 대해 졸업생인 G科 L君은 학교설립초기에 강의실이 없어 인근 경주고등학교 체육관을 임시 강의실로 사용하면서 비·바람을 맞아가며 수업을 받아야만 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한마디로 경이적인 성장이고 이는 졸업생 모두의 결실이요 완성된 모습과 같다』고 말했다.

慶州大學 건설사업은 당시 경주대학 연구위원회의 약1년에 걸친 연구끝에 마련된 종합건설계획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이미 4단계 사업인 중앙도서관 공사를 마무리 짓고 사실상 주요 건물의 건축공사는 마친 상태이다.

건설사업의 제1단계 사업이었던 인문과학관은 79년6월에 기공하여 다음해5월에 완공된 것으로 총공사비 26억원을 투입한 5천60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4층의 매머드 건물이다.

인문사회학관은강의실36개, 실험실습실10개, 교수연구실22개, 합동강의실6개, 소강당2개, 휴게실, 식당등을 갖추고현대적시설에 전통미를 가미함으로써 경주대학의 중추적기능을 담당하고있는대표적 건물이다.

또한 2단계사업인 한의학관은 연건평2천1백평규모의 5층건물로 총공사비14억원이 투입되어 연구실36개, 강의실3개, 실험실습실12개, 진료실10개, 환자용 엘리베이터, 실험용 동물사육장, 영안실등을 갖춰 불교정신을 바탕으로한 한의학도들의 보금자리가 되고있으며올해부터는 직접 환자를 받아 임상실습의 진료도 실시할 계획이다.

3단계 사업이었던 기숙사 건설은부지사업의 1단계로 총공사비 21억원이 투입되어 연건평 2천2백평 규모로 3人1室의 1백92개 숙실에 6백여명이 수용 가능하고 세탁실, 휴게실, 세미나실, 식당, 보일러실 등을 구비하여 전국대학중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을 자랑하면서 많은 원거리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있다.

4단계 사업인 도서관 건설은 81년12월에 착공되어 이번 졸업식날 준공식을 가질 예정인데 총공사비 31억원이 투입된 연건평 3천6백36평의 지상 5층규모로 열람실, 교수열람실, 참고열람실, 사서실, 귀중본서고, 휴게실, 식당 등이 자리잡게 되며 서적운반용 렵 웨이터 2대와 6인승 엘리베이터 1대도 갖추게 된다.

▲慶州大의 첫 卒業生이 23일배출된다. 無에서 有를 창조해야하는 개척의 역사그대로였던 경주대로서는 뜻깊은 일이아닐수없다. <사진·경주대인문사회학관>

이러한 건물건축외에도 운동장설치, 진입로포장, 조경사업등 경주대학 건설업무는 계속되어 왔는데 앞으로 경주시내와 직결되는 교량인 慶大橋(가칭)가 연말까지 완공되며 학생회관 한의학과별등 대학본관등이 연차적으로 건설될 것으로 보여 멀지 않은 장래에 18만평의 대규모부지 위에는 맘모스대학이 건설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경주대학의 대단위 건설사업에 대해 서울캠퍼스 T科S君은『초창기 경주대학 사정은 이해하지만 서울캠퍼스를 도외시한채 경주대학에 지난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말하면서 서울과 경주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적하기도 했다.

학생활동 또한 건설사업·만큼이나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선배가 없기에 겪어야 했던 고충을 인내와 끈기로 이기며 창의력을 발휘한 결과 지금과같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설립당시 4개분야 10개학과의 4백명이었던 인원수가 약 5백명으로 급팽창 되면서 올해에는 7개분야 17개학과의 1천5백8평의 신입생을 모집하기에 까지 성장하였다. 경주대학 1기생 이였던 4백명은 4년이 지난 지금 군입대, 휴학 등으로 반이상이 학교를 떠나므로 해서 졸업생은 겨우1백36명 (한의本2年제외)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초창기에 어려웠던 학교사정과 학생활동, 면학분위기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학년간의 학생인원수는 심한 격차를 나타내게 되었다. 선배가 없고 경험이 부족한 1기생들은 학과·써클·학술행사등 여러가지 활동이 미흡하여 처음에는 모든 행사 프로그램을 서울본교에서 모방해 오기도 했으나 차츰 학년층이 쌓일수록 본 궤도를 잡게되고 지금은 23개 써클이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있다.

많은 경험에 의한 자신감이 생기자 서울본교와의 교류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학생활동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인데 李鉉秀학생과장은 써클·학과행사에 대해『모방의 단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창조한 단계임』을 지적하면서『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신라화랑의 놀이, 지방문화등을 연구하여 좀더 창의적인 행사의 개발과 행사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복지시설도 많은 향상을 가져와 꼭 필요한 제반시설은 대부분 갖춰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과거에 흔히는『금장리 공사장 나여기 왜 왔나」라는 표현은 당시의 학교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데 인문사회학관 3·4층의 마무리작업을 하면서 1·2층에서 수업을 받아야만 했고, 공부하고 싶지만 도서관이나 책이 없었으며 뛰고 싶어도 운동장이 변변치 못하여 캠퍼스는 그야말로 강의만 할수 있는 단순한 건물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숙사건설, 의무실, 테니스코트, 방송국, 소운동장설치 우체국개소, 써클룸, 도서관개관 등 장족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렇듯 慶州大學이 설립된 이래 첫 졸업생이 배출되기 까지는 학생, 교수 학교당국 모두가 초창기의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생 배출이란 커다란 결실은 더욱 의미 깊은 것이고 졸업생 역시 경주대학 발전이 자기발전의 한 부분이었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감회가 들 것이다. 이제 경주대학은 건설의 1단계 작업을 마무리 짓고 제2의 도약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경주대학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라 볼 수 있다.

경주대학의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주대학 성격의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것이다.

경주대학은 현재 東國大學校의 10개 단과대학 중의 하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학생규모나 학과의 수 등을 살펴볼때 종합대학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학교편제와 행정조직도 이에 부합되도록 개편 되어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발전을 장애하는 요소가 남아있다.

전국 대학 분교 중에서 K大, H大, J大 등은 이미 제2캠퍼스 등으로 그 성격이 굳어져가며 학교편제는 개개의 단과대학 형식으로 세분화 되고있다.

경주대학 성격에 대해 K科 K교수는 『慶州大學은 慶州에 있는 하나의 분교나 단과대학의 성격은 벗어나야 한』을 전제하고『東國大學校는 서울과 慶州에 두개의 캠퍼스를 가진 종합대학교 형태가 되어야 한』을 강조했는데 대부분의 慶州大 학생들도 이러한 형태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것은 중요한 결단이기에 학교당국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단 성격의 명확한 규명이 내려질 경우 조직의 종합대학적 편제도 이루어질수 있을 것이며 경주 대학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방법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지난2월초부터 진행중인경주대학의 일부 조직개편작업은 매우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慶州大學의 量的팽창에 따르는 질적 향상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과거에는 건설을 해야하는 外的 어려움이있었지만 지금은 학문을 연구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大學 본연의 자세에 충실해야할 때이다.

이에따라 金仁漢경주대학장은 지난9일 지역별 학생간담회에서『경주대학은 분명 제2의 도약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지적하며『면학풍토조성과 우수교수 초빙, 우수학생 유치에 전력을 다할계획임』을 밝히고 학생 각자의 노력을 당부하기도했다.

위에서 지적한 몇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학생·교수·학교당국이 3위일체가되어 노력할때 경주대학은 첫 졸업생배출의 커다란 성과를발판으로 더욱 큰 비약의 발전을 거듭할 것이며 아울러 東國人 모두는 77년 전통을 재정립하면서 용맹정진하는 거보를 내딛게될 것이다. 〈양회태 취재부장〉

새로운 전환점 필요한

83학년도 本校와 慶州大 취업현황과 그대책

學校次元의 대책모색 절실

83年 1월現在 경상대 98%등 총83%

허수 취업자인 군입대가 취업율의 20%차지…다음이 교직順

本校

82학년도 본교졸업생 취업률이지난 1월18일까지 83·18%로 집계되었으며 현재 계속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취업률은 지난해의 세계경기침체및 실업률 증가로 인한 그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대학별 취업률을 보면 경상대가 98% 법정대가 97% 이부대가92% 공과대 91% 순으로 (도표참조) 경상대 법정대 등 몇몇 인기학과와경상대 전산학과의 경우는 졸업생 취업률이 100%이며 경영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등로 100%에 육박하고있는데이들제외하고는 거의가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실질 취업률은 더욱 저조한 편이라 졸업생 취업에 관한 새로운 전환점을 찾아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K과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인 취업인원은 10명미만인데도 취업분포에는 80퍼센트로 나타났는데 이는 군입대가 상당히 차지하기때문으로 실질적 취업률은 50퍼센트미만인것으로 나타났다. (K과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학과들이 이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음)

한편 이번 졸업생 취업자 직종별현황을 알아보면 허수취업자인 군입대가 가장많은 20퍼센트정도를차지하며, 기업체와 교직이 그다음순이며 개인사업도 상당한 수로 알려졌는데 확실한 숫자및업종은 3월중순경 최종집계시 알수있다고취업담당자는 말한다.

이와같은 것들를때 금년의 本校 졸업생취업률은 작년에 비해 증가되었다고는 볼수 없는데 이는 전술한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증가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분적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들수 있다.

첫째, 각기업체에서 입사원서를 몇대학별로 제한해서 배포하는 추세이며 또한 원서도 일부 몇개과에만 국한, 서류전형및 면접으로 채용하는 곳이 많아 학교성적및 사회에서 (각기업체)의 本校의 지명도가 낮은편이라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은것으로 알려졌다.

둘째의 원인으로는 학과별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전공에 관계없이 응시할수있는 경우 (공채적성격)가 점차 줄어들어서 몇몇인기학과를 제외한 학과의 취업자는 교사, 자기사업이외에는 드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慶州大

한편 오는 23일 첫 졸업생 1백36명을 배출하게되는 慶州大學은 졸업 첫해부터 졸업생들의 就業이 용이하지 않아 앞으로의 경주대학 발전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될 우려도 있다.

지난 1月 10日현재 교직자 3名, 군입대 (무관후보생20名포함) 36名, 금융계 2名, 언론계 1名, 기업체 18名, 해외유학 3名, 대학원 진학 (특수대학원 13名포함) 25名, 자가사업 4名, 성직자 1名등 졸업생 1백36명중 92명 만이 취업해 68·3%의 저조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 학과별 취업현황을 보면 불교미술학과가 20명 졸업에 14명, 국어국문학과가 12명 졸업에 6명, 영문학과가 11명 졸업에 4명, 일문학과가 13명 졸업에 8명, 국사학과가 17명 졸업에 9명, 경제학과가 11명 졸업에8명, 무역학과가 21명 졸업에 18명, 경영학과가 18명 졸업에 15명, 회계학과가 13명 졸업에 10명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90% 이상이 취업한 학과는 한개학과도 없으며 80% 이상이 무역, 경영등 2개학과였고 70% 이상이 회계, 경제, 불교미술학과등 3개학과이며 영문학과를 비롯한 국문, 일문등 어문계열은 50%에도 못미치는 극히 저조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 해당학과의 학생들에게는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의 핵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이번에 졸업하는 경주대학생들의 전체 취업률은 타대학과 비교할때 극히 낮아 하루빨리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며 이는 현재 재학중인 3천여 경주동국인들의 최대 관심사일뿐 아니라 경주대학의 발전에도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학생과의 한 관계자는『일반인들의분교에대한 인식부족과 취업전담부서가 없는 관계로 인한 정보의 미흡등이 가장큰 장애요인이었다』고 말해 문제의 해결책이 어떤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지를 지적하기도 했다.

작년말부터 시작된 졸업생들의 취업문제에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대학에서는 학생과에서 이를 담당해 취업보도판 설치등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으나 기존업무와의 혼선, 전문요원부족등이 원인이되어 취업문제를 상담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지못했던것이 사실이었다.

이에대해 한 졸업생은『대학에서 받는 졸업생들의 사회진출이라는 현실적인 면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장래 대학의 발전을위해서라도 할수있는한지원을아끼지않아야 할』것이라고 못박았다.

취업현황 / 대학	실취업률	총취업률
불 교	31%	61%
문리과	57%	79%
법 정	91%	97%
경 상	82%	98%
농 과	39%	74%
공 과	55%	91%
사 범	11%	72%
이 부	77%	92%
경 주	10%	84%
총	48%	83·18%

◇실취업률은 군입대 등 허수취업률 제외한 것으로 지난해 말 통계이며 총취업률은 1월18일 통계임 <자료제공 학생생활과>

대책

기존의 준비상태및 관리로는 본교및 경주대의 졸업생 취업률은 상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겉으로 나타난 퍼센트는 상당히 높고 전망될수 있겠지만 실질적 취업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하기에 실질적 취업을 늘리기 위해 몇가지 조직적이고 신속성 있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절실하다 하겠다.

첫째 교수및 동문들의 적극적인 취업협조와 학교차원에서의 취업에 대한적극적인대책협의가있어야겠다. 다시말해서 옛날과같이 學士의희소성이 없는 요즘, 또한 사회에서의 本校에대한 지명도도 최고가아닌 상황에서 지난날과 같이 학생들 자체적으로 취직해서 학교당국에 알려주면 통계나 작성하는 소극적 자세는탈피해야한다는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취업지도의 전문화및 효과적인 대책강구를위한 전문기구의설치, 또한 기존시설에 대한 보완및 점검을 강화하며 현재 가장 문제시 되고있는 각기업체에서의 本校지명도를 높이는데 진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앞서말한 대책과는 어느정도 중복되는 문제로 비인기학과의 취업률증가를위한대책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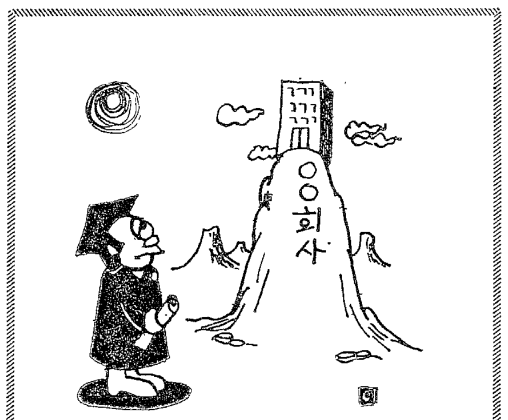
물론 이같은 문제로 앞서제기한 대책만 해결된다면 어느정도 해결될지는 모르나「비인기학과 취업문제」는 분교뿐만이 아닌 사회전반적인 문제이기에 본교만이라도 타대학보다 앞서 비인기학과 졸업생 취업을 위해 학과특성및 졸업후취업을 위한 부전공제를 강화한다든지 본교 진학이념과 관련학과인 경우 분교 산하의 학교및 직장에 취업이되도록 한는등의 적극적 대책을 세워 실질적 취업상승에 진력해야한다.

또한 졸업하는 학생들도 학교가 적극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지않는다고 해서 졸업을 앞두고 학교와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아 열마안되는 추천도 못하고 있는 과가나온다는것은불행한일이라하겠다.

아무쪼록 학교는 학교나름대로 졸업생의 취업을 위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것이며 학생들도 학교와 졸업전까지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本校로 추천 의뢰오는 기업체에 취직될수 있도록 최선을다해야 할것이다.

또한 本校와 경주대에서 거의 전무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여학사들에게도 취업전담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써야 할것이다. 〈남선·서종철記者〉

東國漫評



◇졸업은 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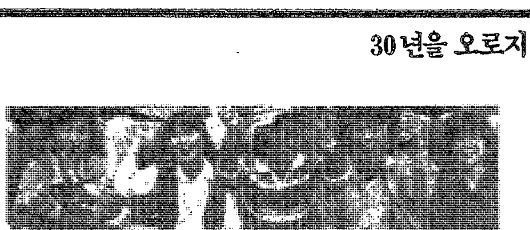
泰昌企業株式會社
TAECHANG-ENTERPRISE CO.,LTD.
본사(부산): ☎ 56-0121/0130, 서울사무소: ☎ 723-5935/9·725-9717/9

30년을 오로지 면직물만 생산해온 외고집이 오늘의 태창을 이룩했읍니다.

저희「태창」은 젊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읍니다.
질기고 편하고 부드러운 것, 바로「버펄로」입니다.

골덴, 우단, 데님, 슈퍼스트렛치

언제 어디서나 활동적인 젊은이— 그들의 행동은 힘차고 그들의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오늘보다는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수 있는 용기가 있읍니다.
생동하는 젊음의 마당에서 활동적인 젊은이가 원하는것— 그것은 순수하고 뜨거운 정열과 샘솟는 활력, 그리고 편하고 맵시있는 캐쥬얼웨어입니다.
젊음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알고있는 기업「태창」— 태창이 생산하는 100%순면 원단「버펄로」골덴, 우단, 데님, 슈퍼스트렛치는 활동적인 젊은이를 위한 캐쥬얼복지입니다.



유명메이커가 만들고 있는 캐쥬얼웨어의 80%가 버펄로 원단입니다.

SS패션, 반도패션, 코오롱, 톰보이 등 국내 유명메이커가 만들고 있는 캐쥬얼웨어와 봉제수출업체의 대부분이 저희 '버펄로' 원단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세계적인 상표들과 어깨를 겨루는 한국의 캐쥬얼웨어들이 굳이 '버펄로' 원단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뛰어난 품질과 아름다운 색상으로 젊은이에게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버펄로' 원단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 호주, 동남아 등 세계40여개국에 수출되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읍니다.

반도 KOLON 톰보이 SS FASHION 三星物產

코튼마크가 순면100%의 뛰어난 품질을 보장하고 있읍니다. 질기고 부드러운 캐쥬얼복지 '버펄로'는 대한방직협회가 100%순면제품임을 보장하는 코튼마크 제품으로 그 뛰어난 품질이 자랑입니다.
순면 특유의 부드러운 촉감은 물론, 입을수록 애착이 가는 산뜻한 색상과 흡습성, 통기성, 방풍성이 뛰어나고 값 또한 싸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어떤 장소에서 입어도 멋이있는 경제적 활동복지입니다.

태창이 생산하는 원단의 종류

버펄로 골덴 가는 골에서 굵은 골까지 다양한 종류와 색상이 있으며 골이 가는 제품은 바지보다는 상의용으로 알맞습니다.
버펄로 우단 100%순면으로서 특수한 표면처리로 부드러운 촉감과 아름다운 색상이 일품입니다.
버펄로 데님 (부루진·칼라진) 세탁때마다 물이 조금씩 빠져 언제나 새롭고 산뜻한 색상을 즐길 수 있는 인디고 데님과 선명하고 다양한 색상이 세탁후에도 변하지 않는 칼라데님도 있읍니다.
버펄로 슈퍼스트렛치 (데님·골덴) 고신축성 복지(Super Stretch)로 순면특유의 부드러운 촉감과 고무와 같은 탄력을 지녀 무릎이 튀어나오거나 구김이 가지 않습니다.

태창은 이런 일도 하고 있읍니다.

태창여상 태창여상은 어려운 여건때문에 배우지 못한 종업원들을 위해 공장내에 설립된 정규과정의 고등학교로서, 540여명의 종업원들이 수업료는 물론, 교복, 교과서, 학용품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제공받아 배움의 길을 걷고 있읍니다. 또한 '태창'은 재단법인 일맥문화재단을 설립, 부산및 경남도내 5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원들의 자녀, 형제, 자매들에게도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산학협동과 문화진흥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내집마련 지원 태창은 회사에 공로가 있는 사원에게는 당연히 보답을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원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돕고 있읍니다. 회사와 가정을 하나로 묶는 '내집갖기운동'의 결과로 사원들의 업무 의욕이 높아짐은 물론, 150여명의 사원들이 내집을 마련하여 단란한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건전기업상 정립 지역사회개발과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에 투철한 '태창'은 은탑산업훈장, 새마을훈장협동장, 국민훈장목련장, 수출공로상등 많은 영예를 안았으며 오늘도 사회에 봉사하고 기업윤리의 실천을 위하여 2,500여 종업원들은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읍니다.

강행된 卒業定員制

83학년도 신학기의 개강을 앞두고학교당국에서는 지난82학년도 2학기의성적불량학생에 대한 무더기 학사징계조치를 취해 현재 졸업정원제 세대인1·2학년학생들의 심각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지난 학기에는 지난 80년 7·30교육개혁이후 실시된 졸업정원제에 의해 본교에서는 처음으로 2학년의중도수료자의 발생으로 인해 학생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학사징계의 기준과 성적 평가 지난 학기의 학사징계현황및 앞으로의 방향을 알아 보기로 하자.

징계기준과 성적평가

현재 본교의 학사징계기준을 살펴보면 졸업정원제가 시작되던 첫해인 81학년도에 그 대상자 (현재의 2학년)를 상대로 그 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강제탈락의 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연탈락의 방향으로 중도수료자들을 유도해보자는 취지로 실시되었는데 우선 학사경고의 경우 종전의규정으로는 취득학점 12학점미만, 평점평균 1·5미만이었던 것(현재 3, 4학년에 적용)이 취득학점 15학점 미만, 평점평균 2·0미만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그러나 제적의 경우는 약간의 완화를 보여 매학년말 성적평점 1·5미만, 재학기간중 2회의 학사경고에서 성적평점1·2미만, 3회의 학사경고로화 척이 바뀌었다.

여기에 성적평가기준도 81학년도까지는 상대평가의 실시를 근거로 A가수강생의 20%, B가 40%, C는 25%, D와 F를 포함해서 15%로 되어있던 것이 약간의 융통성을 보여 A가10~20%, B가 30~40%등으로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어 그범위내에서 교수의 재량으로 성적을 평가하고 있다.

학사징계현황

지난 학기에 성적불량으로 징계를받은 학생중 학사경고는 본교의경우 재학생 총8천5백여명 가운데 모두 5백66명의 학생이 처분을받아 6·6%의 경고율을 보였으며 경주대 에서는 재학생 3천3백여명중 1백98명이 처분을받아 약6%의 학사경고율을 보이고있다.

이와같은 수는 1학기의 본교7%, 경주대 11%에비해 약간의 감소를 보인듯하나 이는 학생들이 학사징계를염려해 군입대 휴학등으로 기피하기 때문이라 할수있겠다.

학사경고자를 학년별로 분석해 보면 본교의경우 1학년이 2백38명, 2학년 2백28명, 3학년 62명, 4학년 32명으로 1, 2학년이 전체경고자의 약85%나되는 높은비율을 차지하고있다.

경주대에서도 역시 1학년이 1백17명, 2학년68명, 3학년14명으로 1, 2학년이 전체경고자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밝힌바와같이 81년도의 학사징계규정개편에의해 나타난 결과라 할수 있겠으나 졸업정원제가 적용되는 1, 2학년 학생들에게는 큰 타격을주었다고 할수있겠다.

한편 이를 각 단과대학별로 세분해 보면 (본교의경우) 불교대가83명, 문리대1백17명, 법정대와 경상대가 각각35명, 91명, 농과대와 공과대가 각각27명, 96명사범대와 이부대가 각각 52명, 1백10명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숫자는 1~4학년까지 모두 합한 것이나 중도수료가 문제시되는 1, 2학년의 숫자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학사경고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수가 단과대별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할 수 있겠다.

다음 제적의 경우 본교에서는 1학년이 16명, 2학년이 27명으로 전체 43명이며, 경주대는 1, 2학년이 각각 4명, 15명으로 전체 19명이 되어 본교와 분교를 합쳐 총 62명의 학생이 이번에 제적처분을 당하였다.

이번에 내려진 제적처분에서 1학년 20명의 경우는 전체가 학년말성적 평점이 1·2 미만인 학생이며, 2학년 42명은 3회의 학사경고처분과 성적평점미달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는 1학기때의 26명 (경주대포함)에 비해 2·5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난 학기가 학년말로서 학년말 성적평점에 제적생이 많이 발생하였고 학사경고의 횟수가 늘어난데 있다.

한편 3학년 진급시 18%의 탈락에 의해 결정되는 중도수료자의 경우 총 14명으로 본교에서는 사범대 수학교육학과 가정교육학과 1명이며, 경주대는 한의예과 7명, 가정교육학과가 3명으로 나타났다.

애당초 계열별로 모집된 현재 2학년들의 과배정당시 많은 인원수가 배정된 영문과, 법학과, 경영학과등이 아닌 타학과에서 중도수료자가 나왔다는 것은 여학생만이 입학하고 있는 학과는 어쩔수없는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중도수료를 의식한 학생들의 군입대, 휴학등으로 인해 예상외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할수 있겠다.

이런관계로 83학년도에서도 성적이저조한 학생들은 또다시 대학입시를 방불케하는 때의눈치작전이 벌어진다고 아니할수없겠다.

또한 이번 중도수료자중 여학생이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크므로 군입대라는 자연休學이 없는여학생의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여기서 본교의 무더기 학사징계에 관련해 타대학의 징계현황을 참고로 알아보자.

J대는 75명의 학생을 제명하고 1천95명을 징계했으며 H大는 1학년35명, 2학년13명, 총48명을 제명하였다.

K大는 2학년 12명을 포함해 총18명을 제적하였고 S대의경우는 1학년 1백43명을 포함해 1백97명을 제명하였고 8백72명에 학사경고, 42명에게근신조치를 취했다.

이렇듯 각大學에 학사징계의 된서리가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학교당국에서는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학기부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이외에도 학기 중간에 교수재량으로 주관식 출제로 시험을 치르고 특히 분담하고있는 강좌에 대해서는 출제와 평가에있어 공동협의 할것을 적극권장하고있으나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에 金翔圭교무처장은 올해부터는 이러한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학생들의 과다한 경쟁에 의한 부정행위를 근절하여 최대한 성적평가의 공정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학기에도 다수의 학사징계조치가 내려졌으며 졸업정원제의 골격을 천명하고 있는 문교당국이나 학교당국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이에 의한 중도수료자들의 수와 징계자의 수는 더욱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3학년 진급시 졸업정원의 18%탈락이란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현재 1학년의 학생들은 군입대를 비롯하여 많은 수의 일반 휴학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다한 경쟁을 보일 법학과, 경영학과등과 가정교육학과처럼여학생들만 있는학과에서는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다수의 학사징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졸업정원제의 계속적인 실시에 의해 올해에도 많은 수의 학사징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당국에서는 이로인해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성적평가를 위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기를바란다. <김봉소記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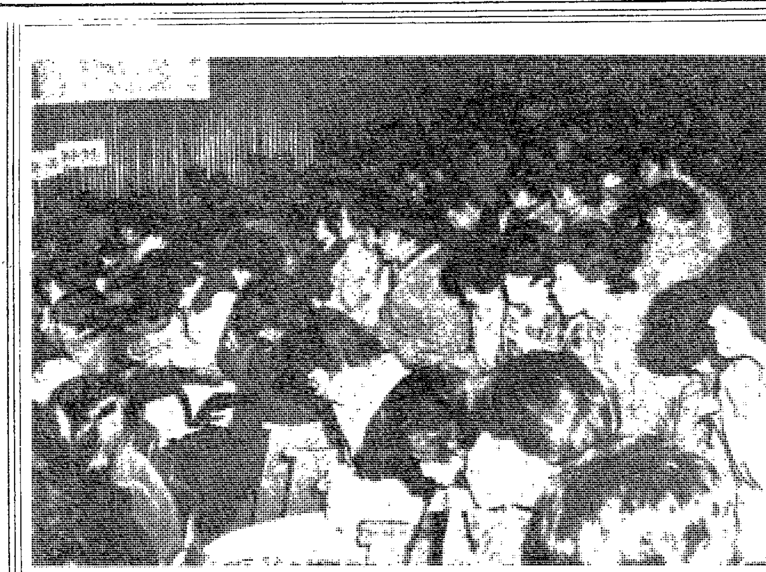
중도수료자및 징계자 계속 增加될듯
군입대, 일반휴학등 자연탈락 많아

▲졸업정원제 실시에 따라, 학교당국은 지난21일 대폭의 중도수료자를 발표했다.

<82년 2학기 학사경고자수>

학년 / 대학	1	2	3	4	계
불교대학	24	8	3	3	38
문리과대학	61	51	5		117
법정대학	24	8	3		35
경상대학	31	45	5	10	91
농과대학	14	12	1		27
공과대학	18	42	12	24	96
사범대학	19	23	9	1	52
이부대학	47	39	24		110
경주대학	117	68	14		
총 계	355	296	76	38	765

카메라 뎃상



新入生에 기대를…

萬物이 소생하는 新春의 季節이 다가오면서 동악은 활기를 띄어가고있는것같다. 더우기 大學社會의 참모습를 알고자 성실하게 동악을 둘러보는 新入生들의 모습에서 생동감을 보는 듯 하다. 진지한 태도로 新入生오리엔테션을 경청하는 모습들을 때 동국의 앞날은 밝을것이라 생각되지만新入生 여러분 께선 大學人의 지성과 낭만을올바르게 인식하도록 아울러 노력해 주길 바란다.

▲新入生오리엔테이션=중강당. <글·사진=최시건記者>

퇴임교수와 함께

"신뢰·존경의 師弟之情이 절실히 필요한 世態"

韓相璉 <문리대교수·철학>

따스한 茶 한잔을 권하며 미소를 머금은 韓相璉교수님의 얼굴에는 그 차보다도더 따스한 情이 흐른다.

『그냥 섭섭해요. 학문에전념하여 훌륭한 후배양성을다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지 특별한 감회랄것은없지요』하는 교수님의표정은 너무 인자하기만 하다.

『大學人은 대학생활에 긍지를 가지고 학문의 연구와진리를 탐구하는 目的意識을 가져야되며, 사회적·시대적흐름을 의 역조현상으로 나타난학생과 교수사이의 이해·대인관계를 올바로 정립해야 하지요』라며 교수와 학생간의 不信이 하루빨리 없어져야된다고 강조하고『학생과 교수간에는 신뢰 존경의 師弟之情이 필요합니다』라고 덧붙이셨다.

일제때 교육을 받던 당시 白僎 최규동선생의 영향을받아 우매한 사람들을 깨우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교육계에 투신하게 됐다는 韓교수는, 철학을 전공한 이유를 묻자『생명체를 갖고 있는모든 만물에 대한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哲學的으로연구하기 위해서 택했지요』라고 말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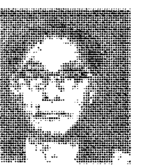
『참고 마음을 늘 편안히 가지며, 남을 괴롭히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58년부터 25년간 本校에 奉職해온 韓교수는『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라는 귀절을 인용하면서 人和敎育을 강조하신다.

東國의 새로운 가족이 될 신입생들에게 도움말을 부탁하자『사회의 기여도 및 적성을 고려한 科선택이어야 바람직하며, 大學의 의미와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되지요』라고 말하시는 韓교수님은5, 6전년까지만해도 테니스를 통해 건강관리를 유지해 왔지만, 역시 건강에는 규칙적인 생활이 최고라고 말하신다.

韓교수님은 앞으로 대학원 및 학부의 강의를 1학기까지만 맡고, 경기도 연우에 있는 조그만 농장에 閑居하며 「새삼스레의 원리」, 「한국 철학사」등 몇권의 책을 출판할 예정이시다.

『수고했어요』란 韓교수님의 인자한 말을 인상깊게 느낀 채 조용히 발길을 옮겼다. <洙>

"過慾않고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大學人 돼야"


裵吉基 <불교대교수·미술사>

봄맞이를 준비하는교정구석구석에 쳐지난 눈송이가며 적게 내려앉는다. 퇴임소감을를 어야 하는 기자가 추위를 더하게 하지나 않을까하여 엉거주춤하게 배교수님을찾았다.

『섭섭합니다』평생을 교육계에 투신하셨고 본교와는큰 20년동안 인연을 맺어오신배교수님께서는 헤어짐의 복잡한 감정을 그 짧은 한마디로 뭉뚱그리셨다.

『그러나 끝이란 생각은갖고 있지않습니다. 하고있는일도 많고 할일도 많지요』

本校교수보다는 오히려 서예가로 더 유명한 배교수님은 집필중인「한국서예사」를 추고보완하여 빠른시일내에 완성시킬 계획이라고 하셨다. 글씨란 그자체가 본래 선비의여술인데 이해득실관계로 분파된 현재 우리나라의 서예가 서예를 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반성으로 하루빨리 한데 뭉쳐야만 발전할수 있다면서 주름진 얼굴에 그늘을 드리우기도 했다.

『우리네의 가장 큰 보람이라면 첫째가 제자들이 훌륭하게 된는것이지요. 요즈음엔 적극적이면서도 과욕을 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인들이 점점 줄어드는것 같아요. 언제나 학생의 본분을 잊지않고 열심히 공부하는게 최고지요』

텅빈 강의실을 둘러보시는 교수님은 자못 걱정스럽기만 하다. 『사소한 일로도 옥신각신하는 속좁은 우리 국민은 度量을 넓혀 큰눈과 큰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볼줄알아야한다』는말씀을 덧붙이셨다. 이젠 본교에서는 뵐수없다는 생각때문인지 몇마디 하시고는 천천히 일어서시는 교수님께 즐겨쓰시지않는『건강하세요』라는 인사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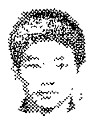
『알뜰히 살고 알뜰히 공부하면서도 마음만은 너그러워야합니다』하얀화선지 같은 겨울속으로 묵향을 풍기시며 조심스럽게 내리깃은 한회처럼 배교수님이 사라지자 갑자기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속을 파고드는 지독한 추위를 느꼈다. <珠>

佛大 홍정식교수는 개인사정상싣지못함을알려드립니다.

도서관서 지낸 東國의 4년

首席졸업자와 함께

결강하지않은것이 首席의비결


노영대君

봄을 시샘하는 우수추위가 유난한 날씨에 올해 본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노영대 (법학과)군과 신문사에서 자리를 같이했다.

수석졸업을 축하한다는 기자의 말에『부끄럽습니다. 저보다도 더 열심히 하신분이 계신데』

겸손하게 말을 받아넘겼지만『실상 노군은 거의 매일 새벽6시 부터 밤 11시까지 도서관에서 생활했다』고 같이온 친구가 옆에서 귀띔을 해 주었다.

전남 함평에서 농업을 하는 노종상씨의 3남1녀중 삼남인 그는 함평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다녔고 75년도에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에 갔다와서 본격적으로 고시공부와 학교공부를 병행했다고 하는 그는 결강 한번도 없는 학구파로 널리 알려져있다.

『강의를 열심히 들었죠. 결강은 한번도 없었읍니다. 강의에 충실했다는것이 수석을한 비결이라면 비결일까요.』

담담히 말을 해나가는 그의 모습에서 차분하지만 침착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있음을 느낄수 있었다.

독서가 취미라고 하는 그는 대학생활중 기억에 남는것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3학년때법대주최 전국사회과학분야 논문발표대회에서 수상한것이 기억에 남는다고한다.

평소 우리나라에서 미개척분야인 범죄심리학과 법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해보겠다고.

졸업 성적은 백점만점에 91·92를 얻었다.

앞으로의 진로를 묻자 그는『법조계에서 성실히 일을 해나가며 참된 삶을 구하는 생활을 하겠읍니다.』라고 자신있게 포부를 밝힌다. <틀>

회전무대

卒業生 앞길에 榮光 있기를….

졸업생들의 힘찬도약을 기원합니다

○…새로운 世界에로의 힘찬도약을 하기 위해 그동안 東岳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연마했던 우리의 1천9백여 학생들이 정든 교정을 떠나게 되었는데. 學問뿐만아니라 모든 면에서 他校 학생들에 비해 월등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졸업생들의 意志는 그 어느때보다도 충천해 있다고. 특히 신라의 古都 서라벌땅에서 慶州大에서도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어 기쁨을 더하고 있다는것. 정든 學校를 떠나는 선배들에게 후배를 섭섭한 마음 달래며 뜻을 모아한마디『선배들의 앞길에부더 영광이 있기를…』

신입생 여러분 創造意識지닌學生되기를

○…창조의식및 대학의의미와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해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의 부담(?)속에 어려운 관문을 뚫고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예년과 같이 치열한 눈치작전에 휘말려 곤욕을 치뤘지만 이제 合格의 영광을얻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반면, 大學의 낭만과 울타리에 휩싸여 자기 자신을 저울질(?)한는나쁜 습성을 버려두고, 이제는 오로지 학문연구와 창조적인 知識 眞理 창출이라는 대학 본연의이념을 똑바로 인지하고, 過去를반성하며 未來지향적인 인격형성을연마하는데 전념하시기를. 그런의미에서 미진하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

83년은 스포츠東國의 해

○…82년도에는 만년 준우승이라는 별명을 얻은 본교 야구부가 83년도에는 기필코 우승을위해 강훈을 펼치는것과 함께 후원회의 활동도 활발하다고 하는데. 내용인즉 야구부가 동계훈련을 광주에서 실시중이고 후원회에서는 전지훈련비를 보조하는등 뒷바라지에 도움이 컸다는 것. 이같은 후원에 야구부에서는좋은 성과를 올리겠다고 열의가대단해 아무래도 83년은 스포츠동국의 해가 될것같아 本회전무대 흐뭇하기만.

慶州캠퍼스에 감도는 훈훈한情

○…겨우내 얼어 붙었던 땅을 녹여주는 화사한 햇살이 비치고 있는 慶州 캠퍼스는 이에 더하여 인정어린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는데. 내용인즉 慶州大學 佛敎美術科에서는 지난번 열린「졸업미전」출품작품중 졸업생작품 20여점과 교수작품 5점등을 학교에 기증하여 인문사회학관과 신축 도서관 복도등의 빈공간에 전시,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는 學生들을 예술적 분위기에 젖어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 慶州大學 첫 졸업생들의 이같은 훈훈한 정은 작으나마「어린나무가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 위해 굳은 땅을 판 愛校心의 본보기라고 이를 아는 學兄들 칭송이 자자.

부모님께 勉學으로 보답을

○…언제나 그렇듯이 매년 이맘때면 시름에 잠겨 잠못이루는 분들이 계시기 마련인데…. 자식이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大學에 합격했다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는 지난 학기의 가계적자를 채 메꾸기도 전에 다시 쌀 열가마 값에 상당하는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이 바로 그 분들인듯. 일본에서는 지금 의사가 된 아들에게 그간 學費로 들인 4천2백만엔을 반환하라고 아버지가 소송,「學費裁判」이 벌어져 있어 현대사회의 각박함과 함께 학부모님들의 학비부담의 과중함을 다시 절감케해 本회전무대子 울적한 마음 금할길 없는데…. 學兄들 새학기 부터라도 부모님들의 노고를 잊지말고 면학에 매진함이 어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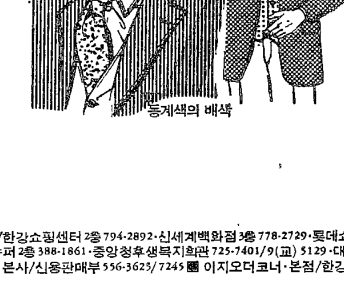
옷을 바르게 입는데 도움을 드립니다④

이글은 남자패션의 전문브랜드 '캠브리지'를 만들고 있는 삼풍양복주식회사에서 국제양모 사무국의 자료협조를 받아 신사복의 모든 정보를 분석 정리하여 1979년 한해동안에 걸쳐 주요 일간지와 월간지를 통해 광고된 글입니다. 그간 많은 사람들로 부터의 재요청에 의해 특히 대학생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다시 정리하여 전해드립니다.

풍요로운 울에 투자하세요. Feel more rich with w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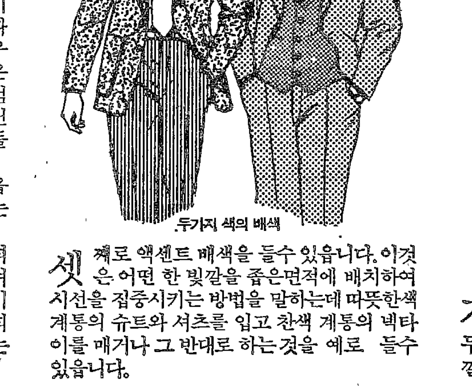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 빛깔의 조화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어울리는 옷의 빛깔을 선택하려면 얼굴빛과 모양, 자신의 분위기, 체격, 유행, 계절감각, 옷 입는 목적 등 따져 보아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대개 상식적 판단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또 저마다의 취향에 따라 그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신사복과 셔츠, 넥타이의 기본적인 배색 요령만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판단과 기호에 맡기기로 하겠읍니다. 옷의 배색 요령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읍니다.


동계색의 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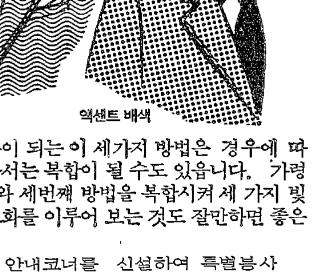
첫째로 같은 계열색 끼리의 배색을 들수 있읍니다. 이 방법은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깊이 있는 방법입니다. 같은 계열의 색 중에서 셔츠를 가장 엷은 색으로, 조끼를 중간색으로 저고리를 가장 짙은색으로 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흔히 저고리와 바지가 같은 천일 경우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지만, 코오디네이트 슈트의 경우에도 많이 쓰이며 이 때에 바지의 빛깔은 조끼의 색깔을 따르면 무난하고 중간 색인 조끼가 빠지는 경우에는 셔츠의 색을 따르면 됩니다. 이 배색은 점잖은 느낌을 주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초점이 흐려지기 쉬우므로 넥타이나 셔츠의 어딘가 한군데에 시선을 집중시킬 포인트를 만들 필요가 있읍니다.

둘째로 두 가지 색깔의 배색을 들 수 있읍니다. 이 방법은 요즘들어 크게 유행하는 코오디네이트 슈트에 가장 많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저고리를 곤색으로 하고 바지를 회색으로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때에 셔츠와 넥타이의 빛깔은 바지 쪽을 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푸른색과 흰색, 밤색과 녹색, 회색과 곤색, 흰색과 검정색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두가지 색의 배색

셋째로 액센트 배색을 들수 있읍니다. 이것은 어떤 한 빛깔을 좁은면적에 배치하여 시선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말하는데 따뜻한색 계통의 슈트와 셔츠를 입고 찬색 계통의 넥타이를 매거나 그 반대로 하는것을 예로 들수 있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계색이라도 명도를 극단적으로 변화시켜 보는 것도 멋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회색, 숯검정색 등의 무채색 바탕에 빨간색, 오렌지색, 하늘색 등을 조화시킬 수도 있읍니다. 오피스 웨어나, 단색조의 옷에 지리한 느낌이 들거나, 분위기를 바꿔 보고 싶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액센트 배색

기본이 되는 이 세가지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복합이 될 수도 있읍니다. 가령 두번째와 세번째 방법을 복합시켜 세 가지 빛깔의 조화를 이루어 보는 것도 잘만하면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읍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기본적인 방법을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응용해 나가는 쎈스에 따라서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스스로만의 멋을 창조해 낼 수도 있읍니다. 이밖에도 몇가지 방법이 더 있지만 스스로의 경험에 따라 자연히 터득할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세가지 기본 배색 요령을 완전히 터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Pierre Cardin PARIS

※신입생및 재학생 여러분 편의도모하고져 각매장에 안내코너를 신설하여 특별봉사하고 있읍니다. (학생증지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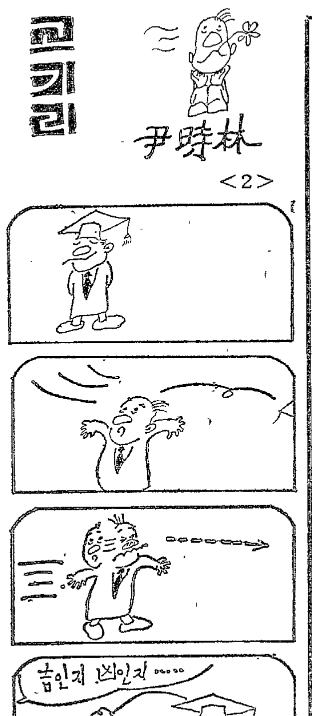
■ 캠브리지매장·본점/한강쇼핑센터 2층 794-2892·신세계백화점 3층 778-2729·롯데쇼핑센터 2층 779-0723·미도파백화점 4층 752-4657·롯데아케이드/롯데 1번가 107호 779-0786·뉴코아쇼핑센터 2층 593-9173(교) 207·청량리미도파백화점 968-3653·신촌로터리외환은행옆 325-2158·영등포영보극장건너편 62-4429·연신내불광동미도파슈퍼 2층 388-1861·중앙청후생복지회관 725-7401/9(교) 5129·대전/동양백화점 26-9564·대구/종앙동 아카데미극장건너편 252-7725·대구/동아백화점 2층 45-9521/30·광주/동구충장로 2가 2-4949·울산/상공회의소건너편 2-8720·부산/광복동 로얄호텔옆 22-5967·부산서면/태화백화점건너편 66-5106 ■ 신용판매부·본사/신용판매부 556-3625/7245 ■ 이지오더코너·본점/한강쇼핑센터 2층 794-2892·롯데아케이드/롯데 1번가 107호 779-0786

삼풍양복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420-1호 캠브리지빌딩 567-4565, 3392/562-7516

남자패션 전문브랜드 CAMBRIDGE 캐므브리지

고키리

尹時林 <2>



새책안내

大學年鑑
애드 영 編

專門大學이상 綜合大學까지 240개에 달하는 우리나라 전 대학의 現況 資料를 비교적 정확하게 한권에 集大成한 책이다. 실지로 우리나라의 大學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부족 한것이 사실이었음에 이 책의 출간 가치가 담겨있다 할수 있다. 총 4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大學槪況編에서는 대학교육에 관한 연구논문 3편이 실려있고 2편 大學現況編에서는 전국 單科大學, 綜合大學 敎育大學 專門大學등의 연혁, 부속기관 재학생수, 교수명단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3편과 4편인 大學同窓會編과 大學敎授人名錄編은 동창회의 회원수, 활동상황 임원명단, 교수학력 현직, 담당과목등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주)애드영刊·1043面, 값50,000원>

通産省과日本의 奇蹟
챠머스 존슨 著

日本의 經濟奇蹟에대한 政治經濟學的 분석서이다. 저자는 일본특유의 정부역할설정과 경제기적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일본경제성장이 보여준 독특한 속도와 형태와 실적을 보다 명쾌하게 제시하며 또한 현대 일본의 通産省의 성장과정과 그 역할, 그리고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가를 상세히 설명하고있는데 이책은 난해한 경제 이론서라기보다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읽을수 있는 社會科學書로써 많은 것을 일깨워 준다.

<우아당刊·424面·값3,800원>

헤겔 논리학 입문
권오걸 譯

일본의「헤겔 철학연구회」에 속한 학자들이 많은 세미나를 통하여 접근한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법인 논리학에 대한 이해를 한권의 비판적 연구서로 종합한 책으로 헤겔의 논리학의 특징을 비롯, 존재론, 본질론, 개념론, 논리학과 사회학등 전10장으로 짜여져 있다. <도서출판 한마당刊·158面·값2,000원>

韓印 文學
창간호

최근들어 文學界에서는 인도文學의 연구와 그 文學의 국내소개를 토착화하려는 움직임으로부산하다. 지난 81년 초「韓國 타고르文學會」라는 명칭으로 인도文學연구를위해 모인 同會에서도 인도의 저명한 傳記作家인 크리슈나 크리파라니와의 긴밀한 유대강화와 부단한 노력으로 창간호「韓印文學」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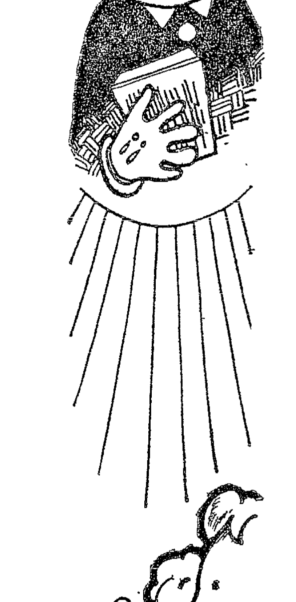
<韓國타고르文學會刊·188面>

우리모두 마음을 주자
—母校 졸업식에 부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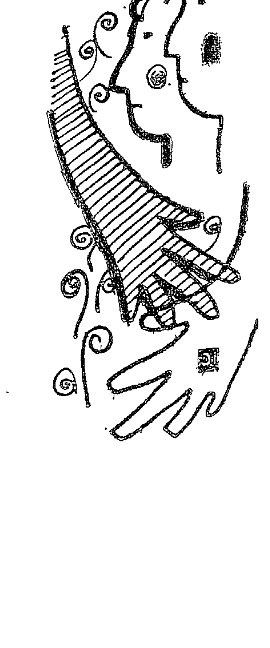
鄭義泓

우리 모두 마음을 주자.
뿌리를 내릴 때의 괴로움으로
잎을 피울 때의 아픔으로
허기진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한
저들 영예의 얼굴들에게
서로의 가슴이라도
열어젖히고
뜨겁게 뜨겁게 마음을 주자.
우리들 모교 동국 대학교는
인류에게 기름진 영토가 되어
처녀들 젖무덤처럼 환하게
한 송어리 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세상의 빛으로 남을 것이다.

모교의 상징 코끼리는
성내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는 것
자유처럼 항상 평화로운 것.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자라난
가장 공손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진실한 삶이 들어 있는
한 그루의 나무.
오늘의 뼈 있는 외침에
귀를 세우고
연등이라도 켜들며
뜨겁게 뜨겁게 마음을 주자.



진리의 말씀으로 행하고
지성의 눈으로
불을 밝혀온 저 영예의
얼굴들이여
삶을 누리되 구차하지 않고
젊음을 누리되 소란하지 않은
순한 코끼리처럼 자라난
나무들이여
지금 우리의 영혼은
인류의 마음 속에 등지를 틀고
사라지지 않는 피가 되어
흐를 것이다.



겨울이 걸어나간 발자욱마다
한 줌의 봄을 뿌려놓고
인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하게
우리 모두 마음을 주자.
농촌에서
도시에서, 세계의 곳곳에서
안테나라도 세워놓고
우리의 주소를 부정하지 않는
한 잎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매때리며
뜨겁게 뜨겁게 마음을 주자.

<同門·詩人>

卒業특집對談
東國과의 因緣잊지말기를

李교수 "東大는 東大의 방법으로 쌓인 難題풀어 나가야"
羅君 "일방적인 문교정책이 大學의 자율성 저하시켜"

□…… 최근 몇년사이 大學은 그야말로「격동」,「변화」의 격변을 거듭하고있다. 며칠전만해도 문교당국의 大學의 각종 정기시험 폐지, 학생자치활동 규제지시가 내려져 世人의 입을 모으게 했으며, 금년 공기업체에서는 교수평가점수를 적용, 그에대한 갈들을박이 그치지 않고있다. 이러한 추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더 發展的인 方向의 東大를 모색하기위해 25일 있게되는 82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계기로 원로 李智冠(불교대학장) 교수와 나호빈(국문과 今年卒業生) 군을 초청, 대담을 꾸며보았다. <편집자註>……□

나호빈=흔히「시간의 흐름은 짧고, 사랑의 흐름은 길다」고 합니다. 졸업하는 마당에 지나온 4년을 회고하니 보람과 후회가 엇갈리는데, 먼저 교수님께, 교수님께서 학문 하실 당시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李智冠교수=내가 학교다닐 때와 지금과는 비교될수 없을 만큼 차이가 많아요.

특히 당시 학생들과 요즘 학생들과는 학문의 목적이나, 희망이 많이 달라졌지요. 지금은 사회자체가 학생들이 전공학문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장래나 생계를 그때보다 더 고려하지 않을수 없게 되어 있는게 사실이죠. 과거에는 국가적으로도 대화의 위치가지금보다는 낭만적이고 분망했죠. 그러나 지금은 말그대로「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인생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각박해가고있죠.

나=「과거에는 시간을 몰면서 살았는데 요즈음은 시간에 쫓기며 산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李교수=그렇게도 볼수가있지요. 옛날 조주 스님이「세상사람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나는 시간을부린다」고 했다는 말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생각의 능동적인 마음의 여유가 요즘 사람들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일 깨워 주는 말이지요.

나=정말「여유」가 너무없는 大學이 돼버린 것같군요. 그럼 교수님의 학창시절과 요즘 大學生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볼수 있겠읍니다.

李교수=나는 다른 학생들과 같이 절에서 학교를다니지 않고, 사찰에서 승려생활을 하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경우가 다릅니다만, 당시의 분위기를 현재와 비교해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학문적인 깊이나 폭은 지금보다 좁고 얇을지 몰라도 人間的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서는 훨씬 풍부했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또 당시 大學은, 가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갈수있었지요. 학비가 없어 못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어요.

나=현대사회의 특성이 그렇듯이 文明이 개화되면서 大學의 본질도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나라에만 있는 현상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교육의 과열 현상」으로 인해 大學의 문은 날로 좁아져 어쨌든「졸업정원제」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大學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大學의 양산화, 대량화의 맹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과거의「大學의 고민」과 오늘의 大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어떻게 그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李교수=역사를 보더라도알수있듯이 어느것이나「변천」은 한는것이지요.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기마련이고「졸업정원제」의 경우에도 그것은 마찬가지라 할수 있겠지요. 불교의입장에서 볼때 지식만이전부가 아니지요. 특히 모르는 것만 못한 경우가 많아요. 人間의 자세가 문제라 하겠어요. 졸업정원제가 실시된 이후로 학생간 사제간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는「전인교육」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大學분기에서 볼때 점서·도덕·人間的인 면에대한 교육이너무 결여돼 있다는게 부정할수없는 사실이예요. 그렇게 되면「지식」과 「人間」을 바꾸는 것밖에않에되지요.

나=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만 인간이 도외시되는상태에서 지식이 범람하는 현대사회에서, 現在 大學이학생들에게 지보다지식만혜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까.

李교수=지식만 내세우기보다는 지혜와 자비를 잘혼합시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불교에서는 자비와 지혜의 조화를 강조해요. 자비를 잘못알고그것만 강조하다가는 쪽박을 차듯이불을 잘 조화시켜야해요. 지혜는 엄하고 자비는 부드러운 것이지요.

나=졸업정원제가 발전적변화이든, 퇴행적변화이든, 또 타율에 맡겨진것이든, 스스로 선택한 것이든 大學은 많은 문제를 안고있는것이 사실이라 하겠는데, 他校의 경우는 제쳐두고, 80여년의 校史를 가지고있는 본교의 경우 타교와다른 고민의 양상이라든가, 그에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라생각하십니까.

李교수=지난 80여년, 정확히 77년이지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佛教宗立大學校로서의 건학이념을 가지고 있어 어려운문제가 특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생각으론大學이 公器인것은 인정하지만 종립학교인이상, 그나름의 개성은, 드러나게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혹자들이 그러한것을 반대한 다하더라도 그것은 실행해나가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불교자체의 역부족등 현재처해 있는 어려움도 충분히 알지만 그럴수록 학교운영자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정신이없는 大學은 없지만, 있다고만해서 중요한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기본정신을 일깨워주고, 박에도 드러내야지요.

나=사실, 건학 이념이나기본정신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학풍이나 교풍확립에 그것이 도움을 주는것도 사실입니다만 大學입시 준비생의 입장에서볼때 그런것을 중요하게생각하는 학생이 얼마나될지 모르겠읍니다. 그리고그외에도 불교란는 건학이념을 강조하기에 부정적인요소들이 많기때문에 학생들에게 그것을 억지로 보다는 부드러운 방법으로참맛을 이해시켜 주는것이옳지 않읍니까.

李교수=물론 강제적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단지 기본적인 것을 도 하지않고 있으니까 말이지요. 물론 일정한 강의시간에 그많은 양의 교과목 집어넣자면 불교에관한 과목을 집어넣을 여유가 없겠지만, 할생각이 있다면 학교 당국자들이 어떤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나=저도 이미 졸업하신 선배들을 만났을때, 명색이 불교적 인격도야가 건학이념인 학교를 나왔는데 불교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말을 자주 듯습니다. 저자신도 누가불교에대해 묻는다면 대답할수가없을것 같습니다.

李교수=그렇지요, 東大를나오고도불교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예요. 직장엘 들어가서도상사나동료가「자네 동대나왔지」하면서 불교에 대해 물어본다면, 대답해 줄수있어야지요.

나=현재 大學이 당면한 문제들을 본교의 경우 건학이념으로부터 풀어나가야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다른얘기가 되겠읍니다만, 각종 정기시험을 폐지하고 평일의 학생행사를 규제한다는 문교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문교시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최근 공기업체에서 교수평가 점수를적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문교당국이 사제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으로 받아들여지긴 합니다만, 이러한 문교당국의 정책들이 大學 스스로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교수=나도 얼마전에문교부지시를 신문지상에서접했어요. 물론 문교당국이나 학생들이나 학교나 전부나름의 입장이 있고, 나름의고충이 있어 문제는 복잡해요. 이번 문교부지시의경우, 大學生活에 있어 도서실이나 연구실에서의 공부보다는, 어떤면에서는 자유롭고 창의로운 공부가 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실지활동이 중요한데, 행사를휴일에 한정시키는것을 어느면에 볼때 이번 지시가「규제한다」고 말한 수도있죠. 뭐라고 딱잘라 말하기가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교수평가점수는 자칫 제대로시행되지 않으면 정실에기울어질 가능성도 많고, 졸업정원제때문에 얽어매진사제간의 각박해진 관계도나아질지는 잘모르겠어요.

나=그렇다면 문교정책이 일방적으로 大學의 자율정책을 규제하고 있다고도볼수 있지 않습니까. 大學은정부의 계속적인 정책지시로 경직화되어가는 면을눈에 띄게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大學교육도「고등학교식大學」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 교수님들도 졸업정원제로 성적처리등 여러업무로 교수본연의 연구기능을 침식당하고 있어 大學의복리화, 대중화, 저급화라는말과함께, 정부의 시책에만복종하는 자율성을 상실한大學의 모습이 우려됩니다.

경제에는「빈곤의악순환」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大學 교육에서는 이 말을그대로 빌어와「교육의 악순환」을 초래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大學이 이제부터라도 스스로 자율적으로 대학을 지켜나갈 방법이었다면 무엇이겠읍니까.

李교수=물론 당국의 통제도 그렇고 학교 스스로 야기시킨 문제도 학교 스스로 먼저 반성해야지요. 감독기관의 통제는 근본적인 원인이 학교에 있었으니까요. 좌경된 학생들에게는 종용, 종도가 필요하지요. 지금 초래된 현상은 학교, 감독기관 양쪽에 다 책임이 있읍니다.

나=大學자체가 양적으로팽창해, 연구학습기능이 이뤄지기 힘들어, 大學의 기능이 大學院으로 이전될 듯하다는 말을 저도 들었읍니다만 저희학교의 경우 大學院 중심의 교육을 할 준비상태가 되어 있겠읍니까.

李교수=나는 大學院을 강의하지 않아 잘 모르겠어요. 며칠전 문교당국이 대학원장 회의에서 大學院 기능활성화를 얘기하고, 과거大學의 기능을大學院으로 옮길 조짐을 나타냈지만 문제점이 많아요. 또 본교의 경우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거예요.

나=그리고 일반학부의 大學生들이 근래 보이고있는 방황은 사실 어른들 책임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本校나름의 교육체제로써 어떻게 극복되어 질수 없겠읍니까.

李교수=大學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그건 교육뿐인데 시간이 없어요. 학생이 입학해서 마칠때까지 수강하는 학점이 1백40학점이요. 그런데 그학점을 취득할동안에 이거하고 저거할 틈이 없어요. 정신교육을 할 틈이 없다는 거지요. 現代의 대학에서 人間교육이란 어려운 문제일수 밖에 없지요.

나=교수님, 말씀 감사했읍니다.

때=2월18일 오후2시
장소=本社 주간실
정리=최중룡 기자

▲李智冠교수

▲나호빈군

메아리
헤어짐의 美學

▲이 세상에는 평범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같은 기쁨을 나누어 가지므로써 더욱 보람되거나 기쁨의 정도가 커질도 물른 있을 것이다.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人生)이 마냥 즐겁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못하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의이야기나 오늘을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공통된 것이 있다면人間事에 있어 가장큰 기쁨은 出産의 기쁨이요, 가장 큰슬픔은 死亡의 슬픔이라 하겠다. ▲사람에게는「生老病死」라하여 네가지 기쁨과 슬픔이 있다.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어 죽는다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가 보편 眞理가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生의 기쁨이 삶 가운데서 가장 슬픈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더러는 있다. 삶, 즉 生 그 自體가 무의미한 경우에 한할 것이다. 人間은 태어남으로 해서 느끼고, 느낌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느끼는 과정에서 人生의 승패의 갈림길이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얼마전 어느 교수님은 삶에대한 스스로의 느낌에 대해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하는것을 들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어 없어질때까지 스스로의 삶 그자체에 대해 한번도 느끼거나 반성도 해보지 못하고 삶을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석가나 공자는 어렸을때부터 삶에대해 느끼고 생각했기때문에 그들의 人生觀이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따르는 철학이 되었다는것이다. 그러나 수천·수백만에 이르는 평범한 사람들이야 죽기직전이건, 50代이전, 40代이건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이 있다면, 어느정도 成功한 삶이라했다. ▲사람은 죽음이외에도수없이 만났다 해어지고다시만난다. 人間의 수명이의학의 발달로 더욱 연장되면될수록 이러한 피곤한 작업은 더없이 많이 되풀이된다. 그러나 삶의 意味는 만남과 헤어짐의 숫자에따라 달라지는것이 아니고, 얼마나 필요적절하게 만났다 헤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남이나 태어남이 아름다운 반면에 이별이나 죽음이 이를못지않은 더큰 아름다움 일수도 있는것이다. <樸>

文化短信

한국의 집茶道강좌

한국문화재 보호협회의 茶道강좌가 3월 5일부터 중구 필동 한국의집(266-6938)에서 열린다. 매주 토요일 하오 2시30분부터 2시간씩 강의. 金明培·龍雲·鄭潔娟씨가 맡는다. (수강료는 월1만원)

등록금 납부고지서만으로 학자금을 대출하여드립니다.

외환은행의 장미교육적금

◉연대보증서, 인감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등의 서류제출이 필요없읍니다.

◉대출대상

장미교육적금에 기본 계약고 이상 가입하신 분

종류별 기본계약고 예시 및 월부금표 (단위:원)

예금종류		기본 계약고	월 부 금
대학 적금	국립대학	1,100,000	88,110
	사립대학	1,360,000	108,936
유학 적금		5,000,000	400,500

*대학원생, 전문대학생의 경우 기본계약고는 한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5배 이상으로 정하여 가입하실 수 있읍니다.

◉대출금액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의 학자금으로 가입하신 적금 계약고 범위내. 단, 유학생의 경우는 등록금, 생활비 범위내에서 가입하신 적금 계약고에 따릅니다.

◉대출시기

다음에서 정한 소정회차 이상의 월부금을 납입하신 후.

구분	융자취급	1회	2회	3회	4회
대학적금		3회차	9회차	-	-
유학적금	연2회 취급시	5회차	11회차	-	-
	연3회 취급시	3회차	7회차	11회차	-
	연4회 취급시	2회차	5회차	8회차	11회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저희은행에 문의하여 주십시요.

한국외환은행